소년단

1964.8

2. 산과 들에 피여나 향기 높은 꽃
해'님 품에 안겨서 당실 춤춰요.
나날이 새라 새 꽃 활짝 펴가니
우리는 즐거워요 행복하여요.

3. 우리 맘 피여난 붉은 꽃은요.
사랑하는 조국에 드릴 꽃이죠
나날이 우줄우줄 자라는 우리
조국의 품이예요 앞날이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	★	★	★	★

8월중 주요 일지

△1.—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 실시 (1956)
△7.—일제를 반대하는 평양 고무 공장 로동자들의 총 파업 (1930)
△10.—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 발표 (1946)
△13.—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 조인 (1959)
△15.—8.15 해방 19 주년 (1945)
△17.—조선 인민 혁명군 무송현성 진공 전투 (1936)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 년 잡 지

소년단

8
1964

소년단

8

1964

차 례

한 줌의 흙 ……………… 오 백룡 … (4)

우리 분단의 자랑 ……………… (7)

(지상작문 발표회) (시작)

다섯 분 한테서 들은 이야기 ……… 김 준규 … (17)

– 공화국 영웅 리 병오 형님의 소년단원 시절 이야기 –

△ 그가 다니던 학교 길을 걸으며 …… 17

△ 영웅 형님의 학습장 ……………… 19

△ 붉은 넥타이 ……………… 20

△ 돌다리를 건늘 때면 ……………… 22

△ 리당 위원장 아저씨를 찾아서 ……… 23

★ 행복할 수록 남조선을 잊지 말자! ★

행복을 노래하는 여섯 오누이 …… 안 전일 … (10)

거리에서 노래를 파는 불쌍한 세 오누이 ……………… (10)

차돌이의 세계려행 라 오 스 ……………… 류 시호 … (41)

과 외 학 습

남이와 옥이 ……………… 김 남수 … (30)

척척 할아버지 – 바다에 대한 이야기 ……………… (26)

지구 이야기 (2) ……………… (32)

알아두기 ……………… (63)

문예

소설 – 신호탄은 어디서 올랐나? (2회) ……………… 김 룡익 … (36)

동화 – 용감한 새끼개구리 (2회) ……………… 배 풍 … (44)

그림 이야기 – 행복의 피리 (1회) … 김 운현 … (14)

영화 이야기 – 흥 부 전 (2회) ……… 변 병순 … (49)

련재 동화 만화 대담한 깡충이 (3회) …. 글 조 병권 그림 원 광수 …. (59)

독자란

동시 – 단 추 ……………… 김 윤일 … (56)

공훈 광부 아저씨 ……………… 오 영옥 … (57)

작문 – 최우등을 하자면 ……………… 신 원길 … (56)

붉은 넥타이를 매던 날 ……………… 로 응길 … (6)

(이것을 아십니까?)

구름은 왜 밀려 다닐가요? ……… (43)

꽃씨 받는 법과 보관법 ……… (40)

왜 곤충은 불빛만 보면 날아 들가요? ……… (25)

해빛은 왜 뜨거울가요? ……… (35)

왜 낮에도 달이 보일가요? ……… (9)

황룡사의 소나무 ……………… 박 수미 … (58)

소년단실

분단 총회를 가지기 전에 .. 리 종기 … (54)

단 벽보 주필이 할 일 ……………… (55)

꼬마 진료소 – 손 쉽게 응급 치료하는 법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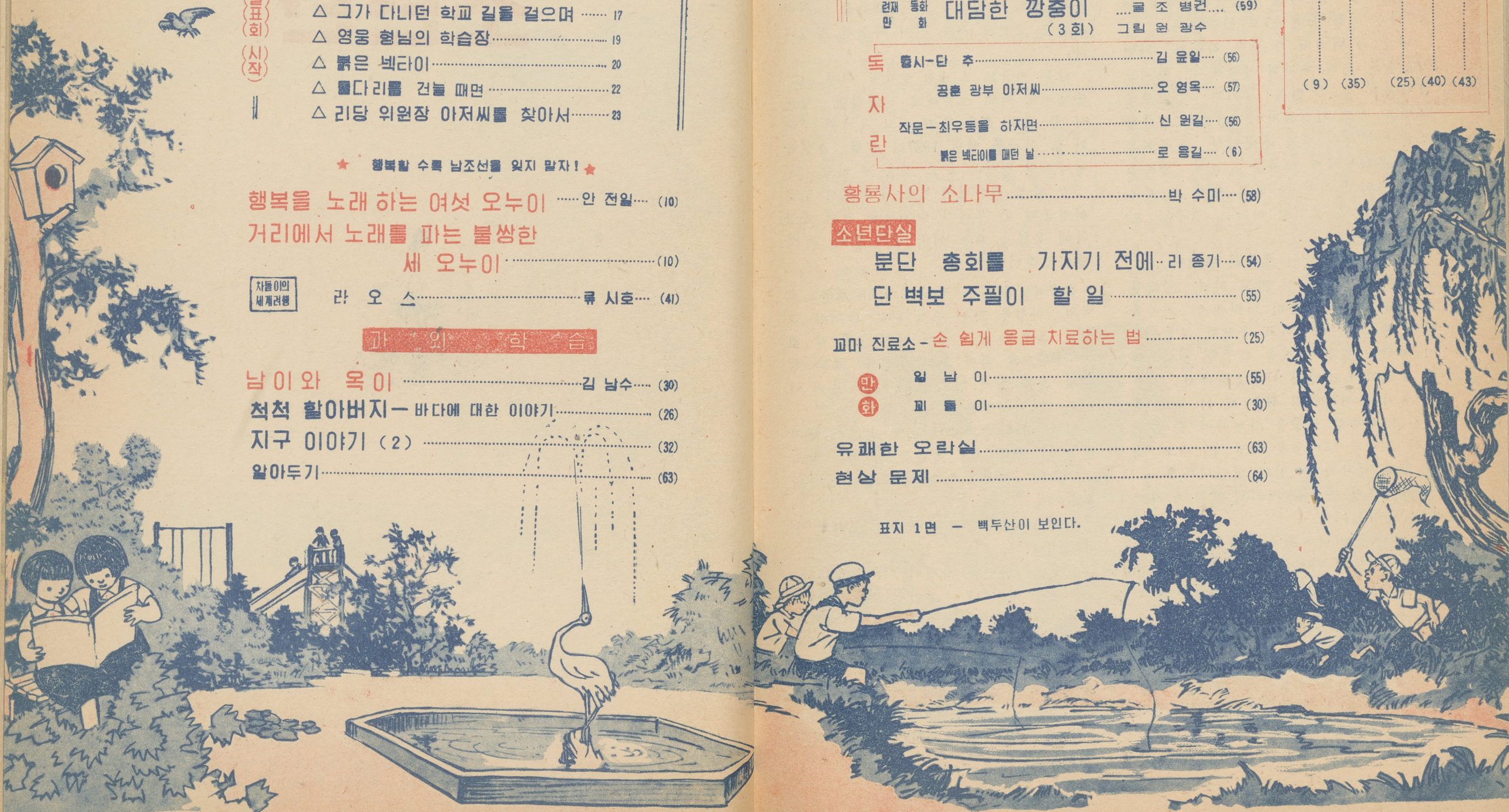
만화

일 남 이 ……………… (55)

피 돌 이 ……………… (30)

유쾌한 오락실 ……………… (63)

현상 문제 ……………… (64)

표지 1면 – 백두산이 보인다.

한 줌의 흙

오 백 룡

예로부터 이르기를 사람들은 《복을 타고 나면 복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생활에서 한시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공기의 은혜로운 혜택을 종종 의식하지 못 하듯이 행복한 조국에서 나서 자란 소년단원 동무들은 간혹 우리들에게 차례진 오늘의 행복을 가슴 깊이 느끼지 못 하고 마치 그 행복이 저절로 온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소년단원 동무들이 아침 저녁 학교를 가고 올 때나 철 따라 나라에서 교복을 받을 때, 또는 화려하고 웅장한 대궁전에서 과학의 깊은 지식을 탐구할 때나 아동 공원이며 소년단 야영소들에서 마음껏 즐기며 씩씩하게 뛰놀 때 이 모든 훌륭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준 사회주의 조국의 고마움을 정말 한 때도 잊지 않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동무들이 그리 많지 못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머니—조국의 따뜻한 품에 안긴 동무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야말로 고통과 슬픔을 모르는 희망찬 행복만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조국!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오늘의 이 행복한 조국을 위하여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우리의 혁명 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15 개 성상 원쑤와 싸웠으며 조국 해방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 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할 때면, 그중에서도 특히 조국에로 진군하던 길에서 한 줌의 흙을 움켜 쥐고 조국의 구수한 흙 냄새를 맡던 1937년 6월 4일을 생각하면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친솔 하에 조선 인민 혁명군의 한 부대가 압록강을 건너 곤장덕에 올랐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올 무렵이였습니다.

눈부신 해'살을 뿌리며 밝아 오는 조국의 아침을 맞는 순간 나는 그처럼 그립던 조국의 넓은 품에 안긴 누를'길 없는 격정으로 하여 그만 무릎을 꿇고 한 줌의 흙을 움켜 쥐고는 마구 두 볼에 비비고 또 비비였습니다.

암만 비비고 또 비비여도 싫증이 나지 않는 한 줌의 흙! 취할듯 냄새를 맡고 또 맡아도 역겨웁지 않는 구수한 조국의 흙!

실로 이 때의 감격을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심정이 아니였습니다. 조국에서 태여 난 분이건 이국 땅에서 태여 난 분이건 모두들 끓어 오르는 환희와 감격을 견디다 못 해 《야!》, 《야!》하고 환성을 올리며 혹은 풀 우에 나뒹굴기도 하고 혹은 나무를 그러안고 돌아 가기도 했습니다.

한 줌의 흙, 한 그루의 나무, 한 포기의 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류달리 정답게 느껴지는 조국—바로 그 조국을 일제놈들이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항일 투사들의 가슴마다에는 원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증오심이 타번지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일 투사들은 멸적의 기세 드높이 총가목을 힘 있게 틀어 잡고 천백배의 복수를 다지고 또 다지였습니다.

《한 줌의 흙》—동무들은 혹 이를 무심히 대할 수 있지만 항일 유격대원들은 바로 이 한 줌의 흙에서 조국의 뜨거운 숨'결을 느꼈으며 어머니의 부드러운 품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항일 유격대원들은, 우리 조국을 짓밟고 보천보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일제놈들을 단숨에 쓸어 눕히고 3천만 인민의 가슴 속에 승리의 신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유격대원들은 원쑤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마다

《조국이여, 보천보여! 잘 있으라! 이제 그대를 영원히 해방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하고 맹세하며 정든 조국 땅을 잊지 못해 흙을 한 줌씩 배낭 속에 넣어 가지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항일 투사들은 그 후 고난의 행군'길에서나 죽음을 이겨 내는 어려운 전투 가운데서도 배낭 속에 깊이 간직해 둔 이 한 줌의 흙을 꺼내 들고 저마다 취할듯 조국의 구수한 흙 냄새를 맡았고 《기어이 조국을 해방하리라!》몇 번이나 맹세를 다지며 일제놈들을 족치고 또 족쳤습니다.

이처럼 《한 줌의 흙》은 일본 침략자들과의 피어린 전투에서 언제나 항일 투사들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힘과 용기로 되였으며 하루 속히 일제를 쳐 물리치고 조국을 해방해야 한다는 크나큰 신념을 안겨 주었습니다.

항일 투사들이 그처럼 마지않던 조국 해방의 신념—이 신념은 드디여 이루어져 오늘날 동무들은 이 귀중한 조국에서 나라의 보배로, 기둥으로 행복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지금 동무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조국은 바로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혁명 투사들이 15 개 성상 일제와 싸워 피로써 얻어진 조국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것처럼 만약 우리들에게 조국이 없다면 동무들의 그 모든 행복도 기쁨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소년단원 동무들은 항일 투사들처럼 조국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보다 더 행복한 지상 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 한 포기의 풀, 한 줌의 흙이라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며 또 언제나 조국을 위한 마음으로 마을과 거리, 학교 주변들에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고, 화단을 가꾸어 계절에 따라 꽃들이 만발하고 록음이 우거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무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 절반 땅에는 미제 원쑤들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이 놈들은 우리 조국 남쪽 땅을 가로타고 앉아 남반부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원쑤들은 틈만 있으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우리의 이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조국을 해치려는 원쑤를 미워하며 남조선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 그 날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모두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는 사회주의 애국자로, 조국의 앞날의 혁명 투사로 열심히 배우며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동무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작문)

붉은 넥타이를 매던 날

나는 지금도 내가 인민 학교 때 소년단에 입단하던 날 소년단기 앞에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고 소리 높이 소년단 구호를 부르던 때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나는 남들보다도 좀 늦어서야 소년단에 입단했습니다. 인민반 1 학년 때부터 앓아 눕게 되여서입니다. 병은 나의 즐거운 생활도, 재미 있는 학습도, 소년단에 입단하기 위한 노력도 모두 가로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붉은 넥타이를 맬 날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내가 병이 나아서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고 소년단에까지 입단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는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기 위하여 소년단원의 의무를 학습하고 그 대로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1 주일에 한 번씩 혼자서 총화를 져 보군했습니다. 그리고 고칠 점은 붉은 수첩에 써 넣어 가지고 그 대로 실천에 옮기였습니다.

비록 내가 세운 생활 계획이지만 한 개의 분단이 세운 결정처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학습에서 최우등생이 못 된 것이 항상 마음에 꺼렸습니다.

나는 항일 투사 오 백룡 선생님이 쓰신 《배움의 첫 걸음》을 읽었습니다.

(항일 투사들은 적과 싸우면서도 혁명을 더 잘 하기 위해 짬만 있으면 열심히 우리 나라 글을 배우지 않았는가, 지금 나는 당과 수령의 배려를 받으면서 공부하지 않는가! 그런데 최우등을 못 해서 되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때부터 나는 밤에는 몇 번씩 찬 물에 세수를 하면서 졸음을 쫓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최우등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나는 소년단원의 의무를 학습하고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배워 가면서 소년단 생활을 잘 하여 마침내 영예로운 사 로 청 맹원이 되였습니다.

지금 나는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학습과 동맹 생활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북도 평산군 물개 농업 학교 기술반

로 용길

우리 분단의 자랑

재미 있게!

우리 분단이 모두 우등, 최우등생으로 되기 전에는 학습이 다른 분단보다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때 분단의 어떤 동무들은 산이나 강가로 놀러 다니는 데 재미를 붙이고 결석을 하는 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분단 위원회는 연구 소조를 조직하고 그들의 취미 대로 연구 소조에 넣어 주었습니다. 연구 소조들에서는 매일 동무들의 마음에 맞는 재미 있는 일들을 조직하였습니다. 때로는 분단 전체가 강에 낚시질도 갔고 표본을 만들기 위해 산에 새 잡으러도 갔습니다. 잡아 온 새들과 고기로 여러 가지 표본을 만들기란 아주 재미 있는 일이였습니다.

이렇게 분단에서 조직한 재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동무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토끼 연구 소조원으로 된 택로 동무는 토끼 기르기에 열성을 내였습니다.

분단 토끼가 매독(토끼병의 한 가지)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택로 동무는 할미꽃 뿌리를 캐여다 두들겨 물을 내여 분단 토끼뿐만 아니라 4, 5 분단의 토끼도 모두 치료했습니다. 분단 위원회는 택로 동무의 모범적인 이야기를 곧 분단 벽보와 단 벽보에 실어 칭찬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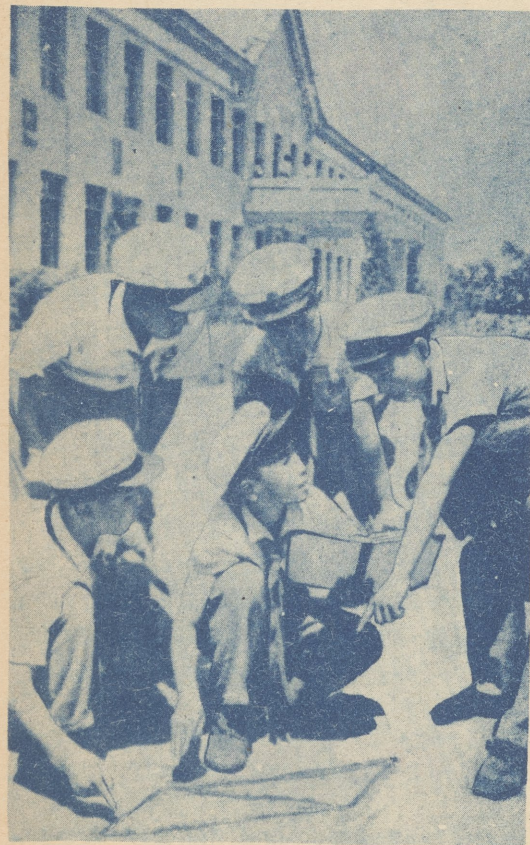
이렇게 하여 때때로 결석을 하던 동무들이 모두 학교에 잘 나오게 되였습니다.

귀중한 시간

이제는 출석률은 매일 100%가 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중에 학습 도구를 빌리러 다니는 동무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 시간 중에

장난을 하는 동무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분단에서는 이런 동무들을 고쳐 주기 위해 《흘러 간 시간은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분단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는 시간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고 공부 시간에 장난만 하는 종진 동무에게는 《항일 빨찌산들은 어떻게 학습하였는가》를 이야기하게 했고 학습 도구를 잘 갖추지 않고 공부하는 기용 동무에게는 《중등반 학년에서 갖추어야 할 학습 도구는 어떤 것인가》를 준비해 가지고 이야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때나 학습 준비를 잘 해 가지고 다니는 오영 동무더러는 자기의 경험을 동무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습장과 필통 등을 분단 동무들에게 보여 주어 모범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학습 시간이란 정해져 있지 않다.

차츰 분단 동무들은 시간을 귀중히 여길 줄 알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분단에서 학업 성적이 제일 낮은 과목은 산수와 로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극히 일부 동무들은 아직 인민반 4 학년에서 배운 괄호 푸는 법과 소수의 가'법, 감법, 승법, 제'법 등에 대한 계산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분단 위원회는 과목 담당 선생님들과 의논하고 이 문제를 우수한 동무들이 맡아 도와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침과 공부가 시작되기 전이나 또는 저녁에 공부가 끝난 뒤 그 날 배운 문제들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전 학년 혹은 전 학기에 배운 문제 중에서 어렵고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도와 주게 하였습니다.

로어 공부를 잘 하는 오 창근 동무는 동무들이 어려워하는 로어 단어 학습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로어를 쉬운 조선말로 만들어 가지고 외우는 법을 궁리해 냈습니다. 례를 들면 СКамейка (긴의자)를 《쓸가? 매울가?》로, Заяц (토끼)를 《자야지》 등으로 고쳐서 쉽게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마지막 자를 가지고 새 단어를 만들어 내는 흥미 있는 유희도 생각해 냈습니다.

동무들은 차츰 로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였고 하루에 쉽게 5~9 개의 새 단어들을 외우게 되였습니다.

오 창근 동무의 모범을 따라 림 익삼 동무도 동무들이 계산할 때에 제일 틀리기 쉬워하는 승법의 부호 규칙을 쉽게 외울 수 있는 수학 놀음을 생각해 냈습니다. 동무들은 수'자와 부호를 쓴 주사위나를 굴리여 흥미 있게 놀면서 승법의 부호 규칙을 쉽게 외웠습니다.

동무들이 잘 다니는 학교 주변의 나무'가지들과 실습지 주변의 나무'가지들에는 손'바닥 만큼씩한 널빤지에 수학, 물리, 기하 공식 등을 써서 달아 매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분단 동무들의 학습 성적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였습니다. 선생님의 물음에 일 년에 한 번 손을 들면 잘 든다던 종진 동무도 이제는 손을 들고 대답하게 되였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

분단에서는 배운 지식을 더 넓히기 위해 실험 실습과 많은 책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분단 위원회는 하루에 꼭꼭 50 페지씩 책을 읽는 리 재렬 동무의 경험을 가지고 《책은 우리들의 친근한 벗》,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등의 모임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무들이 누구나 다 하루에 30 페지씩 책을 읽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책을 읽다가 학과 학습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뽑아서 학교에서 쓰는 학습장의 여백에 적어 넣었다 공부할 때 참고로 하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읽은 책 이야기 모임》, 《과학 이야기 모임》 등을 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동물 시간에 지렁이를 배운 날 3 반의 영수는 《동물 이야기》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마침 지렁이가 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땅 우에 있는 지렁이의 똥을 모아다 작은 화분에 담은 후 거기에 콩을 심어 보았습니다. 콩은 다른 땅에 심은 것보다 잘 자랐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읽은 책 이야기 모임》에서 한 영수의 이런 이야기는 분단 동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후 동무들의 책 읽는 열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들은 배운 지식을 리용하여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생물 연구 소조원들은 양어장을 만들어 15,000여 마리의 여러 가지 고기들을 기르면서 40여 개의 동물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물리 연구 소조원들은 배운 지식을 리용하여 고성기를 만들어 교실마다 달아 놓고 매일 꼬마 방송실을 잘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분단은 모두 우등, 최우등생 분단이 되였으며 지난 봄에 영예롭게도 2중 모범 분단이 되였습니다. 지금 우리 분단 동무들은 모두가 최우등생이 되기 위해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하신 원수님의 말씀과 전국 모범 소년단 열성자 대회 결의문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원도 안변군 배화 중학교 단
제 3 분단 위원장 한 원식

△ 왜 낮에도 달이 보일가요?

만약 달이 해와 반대로 아침에 졌다가 저녁에만 뜬다면 우리는 해를 낮에만 보듯이 달을 밤에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달은 아침이나 혹은 낮이나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떴다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달도 해와 같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지구만 돈다면 달이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은 매일 거의 같은 시간으로 될 것입니다.

달은 계속 움직이므로 달이 뜨는 시간을 보면 매일 몇 시간씩 늦어집니다.

이처럼 달은 밤에도 뜨고 낮에도 뜨기 때문에 낮에도 보게 됩니다.

행복할수록

행복을 노래하는 여섯 오누이

록음이 짙은 여름철 곱게 단장한 강안 공원을 지나 동평양 로타리에 이르면 5~6 층 높다란 아빠트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지난 7 월 어느 일요일 날 저녁이였습니다. 별도 유난히 반짝이는 이 밤에 선교 2 동 아빠트 창'가에서는 아름답고 맑은 어린이들의 행복의 노래 소리가 고요한 밤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 없이 좋네

는 방울 소리 같은 한 소녀의 선창에 뒤'이어 여러 어린이들이 행복에 겨워 합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김 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

어린이들의 합창은 2 절에 들어 섬에 따라 더욱 높아 갔습니다.

목금과 피리, 바이올린과 피아노 소리도 가족들의 노래에 맞추어 구성지게 들렸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 집은 누구의 집일가요?

그 집은 평양 음악 대학 예과 2 학년 2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 정자 동무네 집이였습니다. 정자네 집안 식구들은 2 년 전까지만 해도 낯선 일본 땅에서 조선 사람이라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2 년전 72 차 귀국선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 정자네 집에는 행복이 깃들었습니다.

정자의 아버지는 지금 평양 일용품공장 가방 직장 부직장장으로 일하고 계시며 어머니 (부 영지)는 천리마 인민 반장으로 사업하고 계십니다. 정자의 오빠와 언니들도 모두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세민이는 남신 중학교 2 학년에, 순애는 선교 중학교 인민반 2 학년에, 세봉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섯 남매가 행복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손풍금 소리 맞추어 행복을 노래하는 여섯 오누이.

정자 동무는 올해 열 다섯 살에 납니다. 오매에도 잊지 못할 조국의 품에 안긴 정자

남조선을 잊지말자!

거리에서 노래를 파는 불쌍한 세 오누이

서울 정거장에서 대통로로 한참 가노라면 서울 《시청》 앞 뻐스 정류소가 나타납니다.

지난 늦가을 어느 날이였습니다. 초생달도 뜨지 않은 이슬비 내리는 캄캄한 밤, 《시청》 앞 네거리에서 북소리 장단에 맞추어 구슬픈 노래를 하면서 구걸하는 세 조무래기들이 있었습니다.

얼굴 생김으로 보아 모두 친형제 간임에 틀림 없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 병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길 가던 사람들은 맨 아래 남동생인듯한 꼬마가 북을 치며 두 자매가 구슬피 노래하는 처량한 모습을 바라 보고는 모두 걸음을 멈추고 한숨 지으며 그들 앞에 다가 서군 합니다.

《얘들아, 이 밤'중에 웬 일이냐?》

《우리를 살려 주세요. 한 푼씩만 보태 주세요. 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지금 집에는 병든 엄마와 갓난 애기가 사흘째 먹지 못 해 굶고 있습니다.》

《아이구, 가엾어라…》

《그래 너희들이 돈 벌러 나왔니?》

《네…》

어머님의 따뜻한 품에서 지금쯤은 곤히 잠들어 꿈 나라에 잠겨 있어야 할 재밤에 노래를 팔기 위해 네거리에서 떨고 있는 이들 세 오누이는 어떤 애들일가요?

× ×

그들은 바로 서울시 충정로 2가 162《미돌 국민 학교》 부근 굴 다리에 붙여 지은 한 간짜리 판자'집에서 병든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열 두 살 난 량 순오와 순애(아홉 살) 그리고 그의 남동생 량 기수(일곱 살)였습니다.

순오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살다가 몇 해 전에 고향인 전라 북도 정읍에 돌아 왔습니다.

십여 년만에 고향에 돌아 와 보니 순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진 고생 끝에 이미 돌아 가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게 된 순오네는 고향에서 공책과 연필,

밤 거리에서 노래를 파는 세 오누이.

행복할수록

남조선을 잊지말자!

행복할수록

동무는 음악 대학에서 미래의 훌륭한 음악가로 자라 나고 있습니다. 해'빛처럼 따사롭고 고마운 당의 품은 정자의 재능을 활짝 꽃피게 하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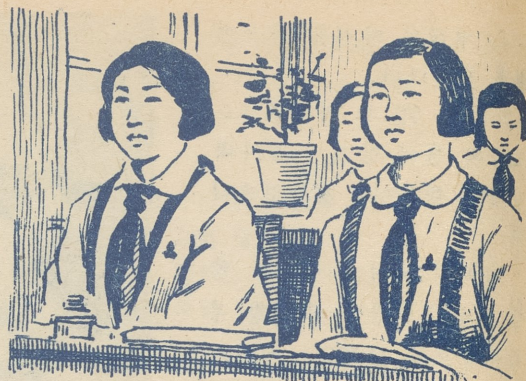
정자는 선생님의 지도와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피아노를 아주 멋지게 타는《꼬마 연주가》로 자라 났습니다.

그는 인민 예술가 리 면상 작곡《봄 노래》와 조 길석 곡《어린이 행진곡》을 비롯해서《무곡》,《피아노 협주곡》등 어렵고 힘든 어떤 곡이라도 제법 잘 탑니다.

지난 6.6절에 있은 일이였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너희들의 명절날이다. 자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한 번 좀 들려 주렴》

아버지는 저녁에《가족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웃집 애들도 모여 들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세봉이가 맨 먼저 나와 독창을 불렀습니다,

세민이의 목금 독주, 순애의 독창, 정자와

세원 오빠의 기악 2중주, 은선 언니의 가야금 독창, 온 가족의 합창 등《가족 음악회》로 집안은 자못 흥겨웠습니다.

이날 밤 어머니께서는 지난날 산 설고 물 설은 일본 땅에서 일본 자본가의 아이가 들고 다니던 바이올린이 하도 부러워 그것을 한 번 만져 보았다 해서 죽도록 매를 맞던 눈물겨운 이야기며 오늘 조국의 품에 안겨 정자네 여섯 오누이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는 행복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정자는 아버지, 어머님의 피 눈물 나는 지난날과 행복한 오늘의 생활과 그리고 미래의 음악가로 자랄 자기의 희망찬 앞날을 그려 보면서 너무도 감격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 하였습니다.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이 되여 나라의 이 고마운 은혜에 보답하리라!) 그는 이렇게 마음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하였습니다. 지금 정자는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동무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동생 순애도 정자 언니에 못지 않게 공부도 잘 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불러 학급의 자랑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는 정자 언니의 뒤를 따라 조국 앞날의 훌륭한 음악가가 될 꿈을 안고 공부를 마치면 학생 소년 궁전에 가서 피아노 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봉이도 제법 하모니까 장단을 잘 하여 마을 어른들의 귀여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당과 조국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여섯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항상 감격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군 한답니다.

《애들아!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구나.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 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은덕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일본에 있던가 남반부에 있다면 너희들이 이런 행복을 꿈엔들 생각할 수 있겠니… 그렇지, 수상님의 참다운 아들딸이 되기 위해 모두 열심히 공부하거라…》 이것은 아버지가 행복을 느낄 순간마다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일본에서 귀국한 정자네 여섯 오누이는 공화국의 다른 모든 어린이들처럼 지금 세상의 부러움 없는 조선의 꽃봉오리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남조선을 잊지말자!

잉크 등을 파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박 정희 도당들이 악착하게 긁어 가는 세금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장사 밑천이 다 떨어진 순오 아버지는 그 후 다섯 식구를 거느리고 행여나 하고 서울로 올라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온들 돈 없고 권세 없는 순오네 집 식구를 누가 따뜻이 맞아 주겠습니까. 일'자리를 구하여 여기 저기를 돌아 다녔으나 일'자리는 좀처럼 차례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일'자리 없이 헤매던 순오 아버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북을 하나 구해 가지고 노래를 팔아 목숨을 이어 가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남산 공원, 래일은 뚝섬, 모레는 서울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찾아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으나 여섯 식구의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해 10 월 어느날 여섯 식구의 목숨을 잇기 위해 그처럼 애쓰던 순오의 아버지는 며칠째 굶은 몸에 북을 메고 나가 헤매다 돌아 오던 길에 그만 쓰러지고 다시 일어 나지 못 하였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놓고 아버지마저 돌아 가셨으니 이들이 어떻게 살아 나갈가요. 병든 어머니와 세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어린 순오에게 지워졌습니다.

순오는 학교를 그만 두고 쓰레기를 주어 팔기도 하고 피를 팔기도 했으나 그것으로는 살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순오는 생각다 못해 아버지가 메고 다니던 북을 메고 동생들과 함께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들도 노래를 팔아서 병든 어머니 약값이라도 마련해 보고 싶어서였지요.

낮 2 시부터 밤 10 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순오와 순애, 기수는 광화문 네거리, 종로와 시청 앞 네거리에서 구슬픈 노래를 불러 한 푼씩 동냥을 하였습니다.

《엄마 죽지마》

병들어 누운 어머니 옆에서 울고 있는 세 오누이.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세 오누이가 부르는 처량한 노래는 오가는 사람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으며 차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세 오누이가 찬 바람 부는 네거리에서 밤늦도록 노래를 불렀으나 그들의 손에는 한 덩이 비지도 살 수 없는 1 원 짜리 몇 장이 차례졌을 뿐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머니마저 약 한 첩 쓰지 못 한 채 이들 네 오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순오네 세 오누이는 북을 메고 헐벗고 굶주린 채 서울의 어느 골목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

련재 그림

행복의 피리 (1회)

그림 김 운현

① 옛날 산 좋고 물 좋은 곳 오룡산 밑 한 마을에 복동이네 야장' 간이 있었다.

② 복동이네 집에서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풀무질 소리, 마치 소리가 울려 왔다. 부지런한 이들은 마을 농민들을 위해 호미, 낫을 비롯하여 쓸모 있고 단단한 연장들을 무엇이나 다 벼려 주고 있었다.

③ 복동이의 친한 동무인 야웅이도 한참 일이 분주할 때면 풀무질을 돕기도 하고 물통에 물도 가득 가득 채워 주기도 했다.

④ 하루 일을 마치고 달이 동쪽 산마루에 올라 오면 복동이네는 토방에 나가 앉아 마을 사람들을 기다리군 하였다.

그것은 이 마을 농민들이 할아버지가 부는《행복의 피리 소리》를 들으려 매일 저녁 모여 들군 하였기 때문이였다.

⑤ 지그시 눈을 감고 할아버지가 피리 소리를 울리기 시작하면 그 은은한 소리에 홀려서인지 높고 높은 하늘 끝에서 선녀들이 너울너울 춤 추며 이 마을 복동이네 집 뜨락으로 내려 오군 하였다.

⑥ 내려 온 선녀들은 피리 소리에 맞추어 빙빙 춤 추며 돌았고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춤에 황홀하여 하루 일의 고됨도 모두 잊고 새 힘이 부쩍 솟군 하는 것을 매 번 느끼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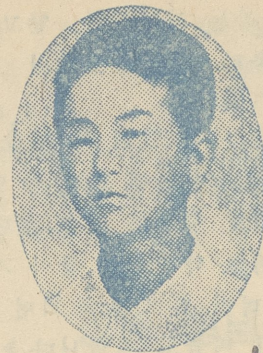
별 나라 별 나라서 찾아 온 우린
피곤한 몸 푸는 노래 가져 왔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 노래 듣고
날마다 흥겨웁게 일하지요.

별 나라 별 나라서 찾아 온 우린
새 힘 불끈 솟는 춤을 가져 왔어요
마음 착한 사람들은 함께 춤 추며
날마다 흥겨웁게 일하지요.

⑦ 이윽해서 할아버지가 피리 소리를 서서히 늦추기 시작하자 선녀들은 어느 새 하늘로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을 농민들은 래일 저녁을 또 기약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날 저녁, 수상하게 생긴 한 괴물이 여느 때 없이 동리 어귀 바위 뒤에서 이 광경을 처음부터 숨어 보고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다.

(다음호에계속)

다섯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

—공화국 영웅 리 병모 형님의 소년단원 시절에 대한 이야기—

소년단 편집부 앞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리 병모 영웅 형님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리 병모 영웅의 소년단원 시절에 대하여 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 형님의 소년단원 시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편집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 요구에 대답해 주실 수 없겠는지요?

황해 남도 연안군 관철 중학교 단 조 성길

편집부의 말

편집부는 리 병모 영웅의 소년단원 시절을 자세히 알고 싶다는 편지를 받고 이것이 조 성길 동무 뿐만 아니라 많은 동무들의 요구라고 생각되여 영웅 형님의 고향 마을에 기자를 보냈습니다. 아래에 영웅 형님의 고향 마을의 다섯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가 다니던 학교'길을 걸으며…

공화국 영웅 리 병모 형님이 소년단원 시절을 제일 많이 보낸 곳은 평남도 성천군 은곡리이다.

우리가 장림 정거장에서 내려 성천 광산 마을을 벗어져 나오니 두 갈래의 길이 뻗어 있었다.

어떤 청년이 여기 하늘 높이 매달려 분주히 오가는 삭도 바가지를 올려다 보고 있었다. 우리는 이 청년에게 은곡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저와 함께 갑시다. 은곡까지 갑니다. 군에서 오십니까?》

《평양에서 옵니다. 리 병모 영웅을 아시겠지요?》

길'동무를 만난 우리는 너무도 반가와 다우쳐 물었다.

《알다 뿐이겠습니까. 전 소년단원 때 영웅의 친한 동무였던걸요.》

그 청년도 반가와 어쩔 줄 모르며 우리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였다. 알고 보니 이 형님은 은곡리 협동 농장에서 일하는 김 명재 형님이였다.

《병모 영웅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 학교에 다녔지요. 이 담에 크면 땅 속의 보물을 캐내는 지질 학자가 되고 싶다며 착암기를 들어 쥐고 막장으로 들어 가는 로동자들을 물끄러미 바라 보군 하던 영웅의 어릴 적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명재 형님은 영웅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며 어린 시절 그와 함께 즐겁게 뛰놀던 고향 마을의 산과 들을 바라 보시는 것이였다.

명재 형님은 말씀을 이었다.

《병모 동무는 광산 마을을 지나다가도 로동자 아저씨들을 보면 밀차를 밀어 드리고야 지났지요. 밭에서 일하는 농장원들을 보아도 돕구요.》

록음이 우거진 산'기슭 자동차'길을 따라 걸으며 영웅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옆으로 비류강 줄기가 소리치며 흘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데 들렸던지 다른 애들보다 좀 늦게 이 길을 걸어 집으로 가는데 누군가 옥수수 밭에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병모 동무였습니다. 뛰여 가 보니 소가 짓밟아 놓은 옥수수를 일궈 세우더군요.

하나하나 일궈 세워 놓고는 빈 밥곽으로 밭고랑에 고인 물을 떠서 잎에 묻은 흙을 깨끗이 씻어 주겠지요. 그 때 나는 병모 동무 때문에 한 농장원 아바이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그이가 보셨거든요.》

명재 형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유쾌하게 웃었다.

《참 그냥 지날 번 했군요. 저 강 건너 로동자 사택 마을 웃켠을 보십시오. 저 밤나무가 많이 서 있는 곳이 우리가 인민학교 때 다니던 학교 자리입니다. 저기에 병모 동무가 심은 두 그루의 밤나무가 있습니다.》

형님은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스적스적 다리를 건너 가는 것이였다.

그 곳에 가 보니 병모 영웅 형님이 심었다는 밤나무에 밤알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려 있었다.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노래 부르며 놀고 있었다.

이 두 그루의 밤나무에는 이런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였다.

그 때 형님네는 오전 반이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공부를 마치면서 학교 운동장 둘레에 심을 나무 한 그루씩을 떠 두었다가 아침에 올 때 가져 오라고 하시였다.

그런데 그 날 오후에 비가 몹시 퍼부었다. 다음 날 아이들은 나무를 뜨지 못한 채 학교에 왔다. 그러나 한 소년단원만이 두 그루의 밤나무를 떠 가지고 왔다. 그가 바로 리 병모 형님이였다 한다.

우리는 다시 영웅 형님이 다니던 길을 따라 걸었다. 어느덧 긴 여름 해는 서쪽 산 너머로 떨어지고 저녁 노을이 곱게 물들었다.

명재 형님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병모 영웅은 소년단원 시절의 짧은 토막 시간마저 정말 보람 있게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 영웅 형님은 남달리 로동을 사랑하였다. 그는 무엇보다 자기 학교와 마을을 사랑하였다. 영웅 형님은 언제나 제일 일찍 학교에 나와 교실을 청소하고 운동장을 쓸기도 하였다. 명재 형님은 병모 형님과 아주 친한 사이였지만 학교에 함께 가기 힘들었다 한다. 그것은 언제나 병모 형님이 일찌기 학교에 가군 했기 때문이였다.

영웅 형님은 집에 돌아 가면 공부도 하고 어머니의 일'손도 잘 도왔다. 집 안팎을 깨끗이 거두고 꽃밭을 가꾸기도 하였다.

형님은 가는 곳마다에 꽃밭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찾아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

《아버지 직장이 옮겨져 병모 동무네가 향풍리로 이사 가는 날이였지요. 친히 지내던 동무와 헤여지자니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를 바래워 주려고 찾아 가니 글쎄 당장 이사를 가겠는데 울안에 있는 꽃밭을 가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장 이사를 가겠는데 무얼 그러고 있느냐고 했더니 글쎄 그는 <꽃은 혼자 보자고 심은 건가. 이제 이사 올 사람이 또 봐야 하잖겠니!> 하고 빙긋 웃더군요.

인젠 다 왔습니다. 저기 은곡 중학교가 보입니다. 그 때 우리를 담임했던 김 익주 선생님이 학교에 계실 겁니다. 만나 보십시오. 아마 나보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더 오래오래 이 길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영웅 형님이 다니던 학교를 그저 지나칠 수 없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웅 형님이 소년단원 시절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를 알고 싶어 명재 형님과 헤여져 학교로 발'길을 돌렸다.

영웅 형님의 학습장

영웅 형님의 담임 선생님은 사무실에 계시였다. 선생님은 커다란 함을 뒤지더니 두툼한 책을 꺼내시였다. 학적부였던 것이다. 선생님은 병모 형님의 성적을 보여 주시였다. 어느 과목이나 가지런히 5점이였다.

《그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을 읽은 날 나는 온 종일 흥분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때마다 곁눈 한 번 팔지 않고 공부하던 병모 동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말입니다.》 하고 담임 선생님은 영웅 형님의 어릴 적 기억을 더듬으시였다.

영웅 형님은 언제나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모를 것이 있으면 그 시간에 물어 보아 알군 하였다 한다. 형님은 공부가 끝난 후에도 선생님을 찾아 갔다. 이 때마다 형님은 조그만 수첩을 펼치며 선생님 앞에 공손히 앉군 하였다. 이 수첩은 교과서나 다른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것을 적어 둔 것이였다.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것 외에 책을 많이 읽은 형님은 아는 것도 많았지만 더 알고 싶고 모르는 것도 많았다.

형님은 때때로 마을의 전등'불이 꺼지면 제꺽 나가 스위치를 고치여 마을에 환히 전등'불이 오게 하였다.

영웅 형님이 얼마나 학습에 힘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은 그의 학습장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어느 학습장이나 보기 좋고 알기 쉽게 깨끗이 정리하였다. 중요하고 어려운 대목들은 색연필로 줄을 그어 놓아 책장을 번지면 환히 눈에 띄였다.

형님은 틀린 글'자 하나 없이 곱게 썼다. 영웅 형님은 학기가 지나고 학년이 지날 때마다 이런 학습장에 표지를 잘 씌워 책함 속에 거두었다. 형님은 인민반 1 학년 때부터 초급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학습장을 거두어 두었다. 그것은 쌓이고 쌓여 어느덧 책함을 가득 채웠다.

영웅 형님은 날마다 학습 계획을 세워 꼭꼭 그 대로 실천해 나갔다.

형님은 자기가 세운 학습 계획을 한 번도 어겨 본 적이 없다. 가끔 가다 어머니가 형님의 책상 맞은 편에 붙어 있는 학습 계획을 읽어 보시였다.

읽어 보시고 책을 많이 읽을 계획이면 형님에게 아무런 일도 맡기지 않으시였다. 밤을 새면서라도 그 날 계획 대로 하고야 마는 형님의 성미를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럴 때면 병모 형님은 벌써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알아 차리고 읽던 책을 덮어 놓고 어머니를 도와 드리군 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가끔 우리 학교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병모 영웅의 학습장과 학습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병모 동무처럼 학습한다면 내내 최우등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담임 선생님의 이 말씀을 그 대로 수첩에 적어 넣으며 생각하였다. 이렇게 훌륭히 공부한 영웅 형님의 소년단 생활은 또 얼마나 훌륭할 것인가! 우리는 담임 선생님과 헤여져 영웅 형님의 어릴 적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을 찾아 떠났다.

붉은 넥타이

우리가 신성천 철도 운수 학교 사로청 위원장인 박 성철 선생님을 만난 것은 그 다음 날이였다.

이 선생님은 바로 병모 형님이 학교에 다닐 때 단 지도원 선생님이시였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병모 영웅과 헤여진 지는 벌써 4 년이 지났지요. 그렇지만 그의 소년단 시절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선생님의 첫 인사의 말씀이였다.

소년단원 시절에 영웅 형님은 무엇보다 소년단 조직을 사랑하였다고 한다.

형님은 소년단 조직에서 주는 과업은 언제나 선뜻 맡아 훌륭히 해 내였다. 형님에게는 이것이 제일 즐거웠다. 분단 총회 때도 형님은 제일 먼저 자리에 들어 와 앉아 기다리군 하였다 한다. 분단 총회는 형님에게 많은 것을 배워 주고 도와 주는 또 하나의 학교처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언제나 좋은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수첩에 적어 두었다가 꼭 그 대로 실천하군 하였다.

그러니 형님이 남긴 아름다운 이야기인들 얼마나 많겠는가. 지도원 선생님은 창 밖을 내다 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을 이었다.

《병모 동무는 언제나 소년단원의 의무 대로 배우며 생활했습니다.

한 번은 단 벽보에 병모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실은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 은곡리 다락산 밑 논에 물이 마른 일이 있습니다. 미처 농장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병모 동무는 언제 보고 생각했던지 그 웃쪽에 있는 샘물과 논밭 사이에 도랑을 파고 물을 댔습니다. 땅이 높고 낮은 데도 있었는데 그는 산에 가서 구새 먹은 나무를 얻어다 관처럼 만들어 놓아 물이 흘러 들게 했지요. 나도 이 사실을 몰랐는데 농장원들이 찾아 와서 병모를 칭찬하더군요.

병모 동무는 좀처럼 제가 한 일을 말하기 싫어 했거든요.

내가 그를 불러다 물어 보니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 소년단원의 의무가 아닙니까…〉 겨우 이렇게 말하며 얼굴을 붉히겠지요.》 정말 지도원 선생님은 영웅 형님의 소년단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였다.

이렇듯 소년단 조직을 사랑하고 소년단원의 의무 대로 배우며 생활한 영웅 형님은 붉은 넥타이도 아주 귀중히 여기였다. 형님의 앞가슴에 드리운 붉은 넥타이는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하였다.

형님은 집에다 붉은 넥타이를 걸어 두는 곳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돌아 오면 차근차근 접어 걸어 놓았다.

그리고는 공부도 하고 어머니의 일'손도 도왔다. 밤에 잘 때에는 물을 뿜어 자리 밑에 깔고 잤다. 잠'자리에 누우면 소년단원의 의무를 외워 보며 그 날 한 일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소년단원 시절에 병모 형님이 버릇처럼 하는 일이였다. 형님은 먼저 그 날 자기가 한 좋은 일을 생각해 보고 분단에서 맡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고 생각해 보고야 자군 하였다.

형님은 매일 밤 붉은 넥타이를 구기지 않게 깔고 잤다. 이러는 사이에 잠을 갈개 자는 버릇까지도 고치였다 한다. 붉은 넥타이에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모 형님에게는 붉은 뚜껑을 씌운 두 개의 학습장이 있었다 한다.

하나는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과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적어 두는 것이였고 하나는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 두는 학습장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은 항상 항일 유격대 아저씨들처럼, 아동단원들처럼 살며 배우기에 힘 썼던 것이다.

형님의 수첩에는 소년단원의 의무와 함께 규률 조항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항상 그 대로 생활하기에 힘 썼다.

형님은 은곡에서 신성천 중학교에 전학해 와서 반장이 되였다. 향풍리에서 다니는 형님네 반 동무들은 규률이 약하고 학업 성적도 몹시 뒤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형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반 동무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며 도와 얼마 안 가서 《모범 반》으로 만들었다. 졸업할 때

형님네 반 동무들은 모두다 우등, 최우등생이 되였다.

《언젠가 향풍리 사로청 위원장 동무를 만나 이야기한 일이 있지만 병모 동무는 소년단 조직 생활을 이렇게 훌륭히 하였기 때문에 민청 생활도 잘 하였습니다.》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영웅 형님의 민청 생활 때의 한 토막 이야기를 들려 주시였다.

영웅 형님이 향풍리 1 초급 단체 위원장으로 일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민청 총회에서 향풍 인민 학교 아이들에게 피리를 하나씩 만들어 주자고 결정하였다. 며칠 후에 이 결정 조항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알아 보니 피리를 만들기로 된 두 청년이 월하동 건설대에 며칠 가 있는 것이였다. 향풍리에서 20 리 가까이 되는 곳이였다. 병모 형님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월하동으로 갔다. 두 형님이 총회에서 맡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려는 것이였다. 두 형님을 만나 민청 생활을 알아 본 병모 형님은 그 날 밤으로 향풍리에 돌아 왔다. 이리하여 총회 결정은 제때에 훌륭히 해 내였다.

신성천을 떠난 우리는 향풍 인민 학교에 들려 그 때 영웅 형님네가 만들어 준 피리를 불며 노래하는 소년단원 동무들을 만나 보았다.

그들은 저마다 영웅 형님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피리를 불 때마다 그처럼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으로 자라리라고 마음 다진다는 것이였다.

돌다리를 건널때면

향풍리 회경 마을 어느 양잠실에서 우리는 이 곳 작업반장 아저씨를 만났다.

앞가슴에 국기 훈장 제 2 급을 단 이 곳 작업반장 아저씨는 바로 영웅 형님의 아버지시였다.

《그 애가 뭐 특별한 애라고 찾아까지 오셨습니까?》

영웅 형님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길을 잡고 놓지 않는 것이였다.

《작업반장님두 특별한 애가 아니라니요. 병모 영웅의 이야기라면 나도 할 말이 있수다. 반장님은 나라 자랑, 농장 자랑은 잘 하면서두 아들 자랑은 아예 안 하하신다우. 마침 쉴참인데 우리 집으로 갑시다. 병모 이야기야 내가 잘 알지요.》

방안에서 누에에 뽕'잎을 주던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할머니는 기어코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였다.

영웅 형님의 아버지는 그저 히죽이 웃어 보일 뿐 아무 말씀이 없었다. 우리는 후에 아버지를 만나기로 하고 할머니네 집으로 향하였다.

가장 집물들이 제 자리에 알맞게 놓인 할머니네 집 방안은 아주 깨끗하였다.

《병모도 늘 우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다우.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인사가 밝고 인정이 밝았게요. 길'가에서 웃어른들과 늙은이들을 열 번 만나면 열 번 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우. 학교를 가다가 동네 유치원 애들을 보면 코를 씻어 주고 어린애들이 놀다가 넘어져 울면 달려 가 일으켜 주구야 지나 갔지요. 혹 어른들이 뭘 들고 들어 오는 걸 봐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였수다. 이내 달려 가서 받아다 주군 했지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혹 저희 집에 이웃집 어른들이 찾아 가두 즐편하게 앉아 있는 법이 없였수다. 벌떡 일어 나서 인사를 했지요. 어른들 말참견하는 법 없구 정말 더 이를 데 없는 애였지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할머니는 병모 형님의 죽음이 아쉬운듯 잠간 문 밖을 물끄러미 바라 보시더니만 말씀을 이으셨다.

《이제 저기 나가시다 보시면 알거우다. 저기 마을 앞 개울에 자그마한 징검다리가 놓여 있소. 한 번은 장마에 그만 돌들이 다 떠내려 가고 물혀서 발을 벗고 건너 다녔수다. 그랬더니 그걸 언제 알고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돌 다리를 놓지 않았겠수.

지금도 사람들은 징검다리를 건너 다닐 때마다 병모 이야기를 한다우.》

이렇게 말씀하시고 할머니는 영웅 형님이 학교에 오고 갈 적에 어지럼'증이 나서 건너지 못 하는 늙은이들을 만나면 손을 잡아 모셔 건너 드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 없이 학교 가는 어린 동생들을 업어 건니운 이야기도 해 주시였다.

병모 영웅은 바로 이런 형님이였으니 자기의 부모와 동생들은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였겠는가!

누나가 없는 형님은 남들처럼 누나를 대신하여 어머니의 일을 도와 드렸다.

어머니가 바빠하실 때면 물도 길어다 드리고 때로는 밥도 지었다.

영웅 형님은 아버지가 군에 가셨다 늦게 오실 때면 언제나 징검다리 곁에 나가 기다리다가 모셔 오군 하였다.

형님은 혹시 아버지가 어데 가셨다가 가방 속에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사 넣어 가지고 오셔도 절대로 마음 대로 손을 대는 일이 없였다 한다.

무슨 먹을 것이 생겨도 동생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남아야 한두 개 먹었다.

영웅 형님은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의 꾸중을 들을 때면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꼭 고치겠습니다.》 하고 공손히 대답하였다.

《병모의 일생은 정말 짧았지요. 그렇지만 병모는 남들의 백 살 맞잡이로 살았수다. 아직 더 이야기할 게 많지만 누에 밥 줄 시간이 돼서…》

할머니는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맺고 먼저 일어 서시였다.

우리는 할머니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리당 위원장 아저씨를 찾아서

리당 위원장 아저씨는 짧은 시간에 만났지만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였다.

리 병모 영웅은 아직 열 아홉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조선 로동당원은 되지 못 하였지만 그를 훌륭한 로동당원이나 다름 없이 생각하고 있다고 리당 위원장 아저씨는 말씀하시였다. 소년단 생활을 거쳐

민청원이 된 형님은 항상 당에 대하여 생각하였고 로동당원들의 모범을 따르기에 힘 썼다.

《…어서 빨리 로동당원이 되고 싶다. 아직 나는 어린 민청원이다. 그러나 나는 당에서 주는 과업이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다 하겠다.》

이것은 언젠가 리 병모 영웅 형님이 쓴 일기의 한 구절이다.

리당 위원장 아저씨는 이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시였다.

병모 형님이 희생되던 그 해 여름, 며칠 동안 계속된 장마에 비류강물이 불어 났다. 그 때문에 비류강 둔덕에 있는 1 단 양수기가 거의거의 물에 잠기게 되였다. 양수기가 물에 잠기면 변압기를 쓰지 못 한다.

마을 청년들이 달려 가 보니 어느새 벌써 리 병모 형님이 와 있었다. 청년들은 힘을 합쳐 변압기를 빼내였다.

그러나 안전한 곳으로 옮겨 가자면 변압기를 60 도나 되는 경사진 둔덕길로 메여 올려야 했다. 목도채를 멜 여덟 명의 형님들이 나섰다. 그 중에는 제일 키가 작은 리 병모 형님도 있었다.

《민청 위원장 동무는 안 됩니다. 키가 맞지 않아 위험합니다.》 하며 오 창덕 형님이 막아 나섰다.

병모 형님은 할 수 없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목도채 뒤를 따르며 형님들을 고무하였다. 형님들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경사진 둔덕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오른 쪽 옆으로도 경사가 져서 잘못하면 변압기와 함께 강물에 굴러 떨어진다.

얼마쯤 형님들이 올라 갔을 때였다.

오른 쪽 경사진 켠으로 움푹 땅이 패워진 곳이 나타났다. 한 사람이라도 여기를 밟으면 목도채가 기울며 굴러 떨어진다. 형님들은 걸음을 멈추고 주춤거렸다. 바로 이 때 누군가 번개처럼 엎디며 패워진 땅을 메웠다. 그는 리 병모 형님이였다. 형님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병모 형님의 잔등을 밟고 넘어 섰다.

《세포 위원장 동무한테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나는 리 병모 동무를 훌륭한 로동당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런 훌륭한 동무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 찬 얼음 구멍 속에 들어 가 두 어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요.》

리당 위원장 아저씨는 거듭 이 말씀에 힘을 주시였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로서 독자들의 요구에 만족을 줄 수 있겠는지 하고 생각하며 이 곳을 떠났다.

편집부의 말

동무들은 리 병모 영웅 형님의 소년단원 시절 이야기를 읽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영웅 형님의 소년단원 시절과 자기의 소년단 생활을 생각해 보면서 작문을 지어 편집부에 올려 보내 주십시오.

잘 된 작문은 앞으로 달마다 잡지 《소년단》에 실려 드리겠습니다. 이에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낼 곳;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소년단》 편집부 앞

※ 겉 봉투에 《작문 원고》라고 쓰십시오.

꼬마 진료소

손쉽게 응급 치료하는 법

《이제 동무들이 행군할 때 알아야 할 응급 치료법 몇 가지를 알려 주겠어요.》 위생 가방을 둘러 멘 《꼬마 의사》는 행군 준비를 갖추고 있는 영숙이네 분단 동무들 앞에 나섰어요.

숲 속으로 행군하다가 혹 뱀에 물렸을 때에는 어떻게 응급 치료하는가구요?

이 때에는 온 몸에 뱀의 독이 퍼지지 못 하도록 재빨리 물린 자리의 웃부분을 노끈으로 동여 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처에 입을 대고 피를 빨아서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뱀의 독이 피와 함께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곧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벌에 쏘였을 때에도 피부 안에 들어 간 독을 빼내야 하며 쏘인 자리에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해야 합니다. 또한 쏘인 자리에 한두 방울의 암모니야수를 떨군 다음 물에 적신 가제로 동여 매면 좋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행군하다가 일사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일사병에 걸리면 머리가 몹시 아프며 묵직해집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구역이 납니다. 또한 얼굴이 붉어지며 혀가 마르면서 땀'기는 조금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심하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하는 법은 먼저 환자를 서늘한 그늘에 눕힌 다음 겉옷을 벗기고 속옷만 입힙니다. 그리고 랭수를 조금씩 자주 먹이면서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머리에 찜질을 하며 차츰 온 몸을 씻어 주면 좋습니다.

병이 더욱 심하여 숨 쉬기 어려워할 때에는 인공 호흡을 시킵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을 구원하자면 물에서 건져 내여 곧 의복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가슴이 아래로 내려 가게 무릎 우에 엎어 눕힙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물에 빠졌던 사람의 입과 코에서 폐에 들어 갔던 물이 흘러 나오도록 가슴의 량쪽 옆을 누릅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인공 호흡을 시킵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이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그의 목을 수건으로 빨갛게 될 때까지 비비고 난 뒤에 더운 방에 눕히고 모포로 덮어 주고 따끈하게 끓인 차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왜 곤충은 불빛만 보면 날아 들가요?

우리들이 여름 밤에 우등'불을 피우면 곤충들이 그 불'빛을 보고 날아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가요?

밤이 되면 날아 다니는 곤충들은 달'빛이 언제나 꼭 같은 쪽으로부터 눈에 들어 오도록 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날다가 박쥐나 기타 자기를 해치려는 동물로부터 피한 후이면 곧 다시 전에 날던 방향 대로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된 곤충들은 불'빛을 보면 그것을 달빛으로 《알고》 나는 것입니다.

날아 든 곤충들이 불'빛을 지나게 되면 다시 방향을 고쳐 가지고 불'빛이 자기들이 습관된 각도로 보일 때까지 돌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여 날아 든 곤충들은 불'빛을 중심으로 맴돌이를 하는 것입니다.

척척 할아버지

바다에 대한 이야기

일동—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척척 할아버지—오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며칠 전에 송도원에서 만났던 동무들이구만. 춘길이두 오구 관삼이두 오구 헤염 잘 치는 영길이두 왔구만. 그래 오늘은 이렇게 배'머리에까지 찾아 왔구나.

영길—할아버지, 오늘은 바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찾아 왔습니다.

척척 할아버지—오냐, 무슨 문제들인데?

춘길—할아버지, 바다도 끝이 있나요? 아무리 보아도 바다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척척 할아버지—너희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지?

일동—예, 알고 있습니다.

척척 할아버지—바다도 평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구가 생긴 모양 대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니 끝이 있겠니 없겠니? 어디 생각들 해 봐라.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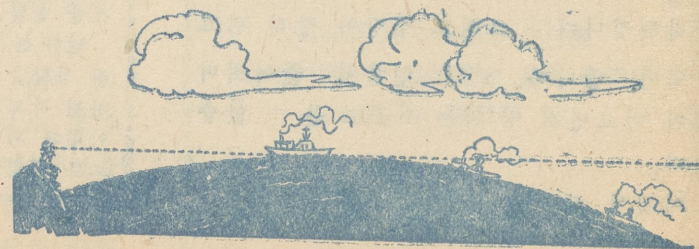
척척 할아버지—우리가 바다에 나가 보면 아득히 먼 바다 수평선이 하늘과 잇닿아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거기가 끝인 것 같지만 거긴 끝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도 알 게다. 먼 바다로 나갔던 배가 처음에는 굴뚝이나 기'발대 끝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점점 다 보이게 되는 걸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그러고 보면 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끝이 있단다.

그걸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더 묻겠다.

너희들은 첫 세계 일주 려행을 누가 했는지 아느냐?

춘길—예, 마젤란입니다.

척척 할아버지—그래 맞았다. 서반아 사람 마젤란은 지금으로부터 400 년 전 배를 타고 서반아를 떠나 서쪽으로 서쪽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다시 서반아로 돌아 갈 수가 있었단다.(마젤란이 거느리던 배들 중의 한 척이) 그리고 보면 바다도 륙지처럼 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춘길—할아버지, 그러면 바다는 얼마나 크나요?

척척 할아버지—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륙지에 비하여 굉장히 넓단다. 전체 지구 표면 면적의 $\frac{2}{3}$는 바다'물이 덮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동해는 조선 반도의 5 배나 되며 서해만도 거의 3 배나 된다.

영옥—그러면 바다'물은 얼마나 깊나요?

척척 할아버지—바다'물이야 상당히 깊지, 세계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은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란다. 깊이는 11,034m나 된단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히마라야 산맥 (중국, 인도, 네팔 국경 지대) 주무랑마봉 (8,882m)이 다 잠기고도 2,000m가 더 깊은 셈이지. 세계 바다의 평균 깊이는 3,794m나 된다. 그러니 륙지를 바다'물에 잠근다면 2,440m 깊이의 바다'물 속에 잠기고 말 것이다.

덕길—할아버지, 동해에서 제일 깊은 곳은 얼마나 되나요?

척척 할아버지—우리 나라의 평균 높이는 482m인데 동해의 평균 깊이는 1,752m이다. 그리고 동해에서 제일 깊은 곳은 3,669 m나 된다.

춘길—그러면 백두산도 동해에서 제일 깊은 곳에 잠그면 거의 1,000 m의 바다'물 속에 잠기게 되겠구만요.

척척 할아버지—그렇구말구.

영애—할아버지, 이 번에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바다'물은 왜 짠지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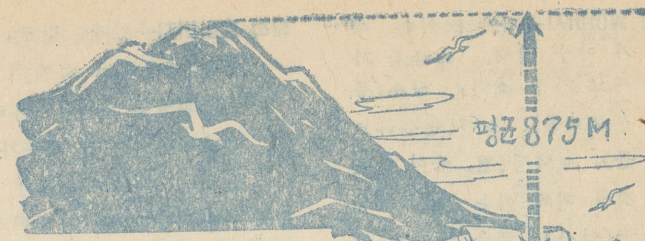
척척 할아버지—바다'물이 짠 맛이 나는 것은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바다'물에는 식염(염화나트룸), 서슬(염화마그네슘), 류산마그네슘, 류산칼룸, 류산칼슘, 브롬화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녹아 있단다. 이것들을 합해서 바다'물의 염분(소금)이라고 한다.

영애—그러면 바다'물에는 소금이 얼마나 되나요?

척척 할아버지—물론 소금이 좀 많은 바다'물도 있고 적은 바'다물도 있지만 세계 바다'물을 평균해 보면 1ℓ (대체로 1,000g 정도)의 물에는 35g 정도의 소금이 녹아 있단다. 우리 나라 바다'물 1ℓ 속에는 33~34 g 정도의 소금이 녹아 있단다.

영길—할아버지, 바다'물에 있는 소금은 어디서 생겨 났습니까?

척척 할아버지—바다'물에 있는 소금은 첫째로, 륙지의 땅 속에 있는 소금들이 강물에 쉬여 바다에 흘러 들어 간 것이다. 지구 우에 있는 모든 강들에서 1 년에 244 톤에 0을 7 개 친 것만한 량의 소금이 바다로 흘러 들어 간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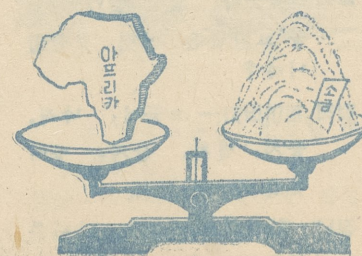
영애—할아버지, 둘째는요?

척척 할아버지—둘째로는 처음부터 바다'물이 소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구가 생기던 처음에는 화산이 자주 터졌는데 이 때에 땅 속에 있던 소금들이 나와 바다'물에 녹게 되였다.

너희들은 세계에서 제일 소금이 많은 바다가 어딘지 아느냐?

영애—선생님이 서남 아세아에 있는 사해라는 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척척 할아버지—옳다. 사해이다. 어찌나 짠지 이 바다에서는 물'고기들도 살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이 바다를 사해(죽음의 바다)라고 한다.

소년단원들—야!

척척 할아버지—세계 바다'물의 량은 13억 7천 km³나 되는데 세계의 바다'물 속에 있는 소금을 모두 합하면 4,796 톤에 0을 13 개나 친 것만한 수'자의 소금이 있는 셈이다. 이것을 한 곳에 모아 쌓아 올린다면 실로 아프리카 대륙만한 소금 《대륙》이 될 것이다. 이 소금을 지구 우에 고루 펴놓는다면 30m 이상의 두께를 가진 지각으로 될 것이다.

척척 할아버지—이렇게 많은 소금은 사람들이 먹는 것 외에도 귀중한 화학 공업 원료로 된다. 사람들은 소금이 없이는 살아 갈 수가 없다. 한 사람이 해마다 6~7 kg의 소금을 먹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1 년에 약 1,800만 톤의 소금을 먹고 산다.

영애—화학 공업에서는 소금을 무엇에다 쓰나요?

척척 할아버지—거야 쓰이는 데가 아주 많지. 소금을 가지고 가성 소다, 망초(류산나트륨), 소다(탄산나트륨), 표백제(천, 종이 같은 것을 희게 하는 것), 청강수(염산), 균을 죽이는 살균제 등을 만든단다. 이것들은 화학 공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품들이다.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는 비날론도, 염화비닐도 소금이 없으면 생산할 수 없다. 앞으로 생산하게 될 비크론도, 니트론도 모두가 소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금으로 가성소다를 만들어서 섬유를 뽑을 수 있다.

관삼—할아버지, 바다에도 바다'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있다는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찬물을 좋아하는 물'고기

척척 할아버지—있구 말구, 그것을 해류라고 하지.

너희들은 우리 나라의 바다에는 어떤 해류가 흐르고 있는지 아느냐?

창애—네, 동해와 서해에서는 한류와 난류가 흐르고 있어요. 한류는 멀리 북쪽에서부터 흘러 내려 오며 난류는 멀리 남쪽으로부터 흘러 올라 옵니다. 리만 해류나 서조선 연안류는 한류이고 동조선 해류와 서조선 해류는 난류입니다.

척척 할아버지—잘 말했다. 우리 나라는 한류와 난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찬물을 즐기는 물'고기들도 있고 또 난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따사로운 물을 즐기는 고기들이 모여든단다. 뿐만 아니라 해류는 기후에도 많은 영향을 준단다 난류가 흐르는 곳은 겨울에도 덜 춥단다.

창애—찬물을 따라 다니는 물'고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겨울이 되면 찬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데 동해에서 이름난 명태, 청어, 연어, 대구, 돌묵어 등을 들 수 있단다.

창애—따뜻한 물을 좋아 하는 물'고기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척척 할아버지—고등어, 낙지, 공치, 멸치, 삼치, 방어 등을 들 수 있지.

정남—할아버지, 저는 바다를 리용하여 무슨 큰 공장을 지을 수 없겠는가고 생각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

해 봤어요.

척척 할아버지—음, 그 참 훌륭한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라 서해안에는 바다'물에서 소금, 석고, 서슬 등을 생산하는 귀성 제염소, 광양만 제염 소를 비롯하여 큰 제염 소들이 많이 있다.

관삼—할아버지! 이 번에는 바다'물의 압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척척 할아버지—그러지.

너희들은 압력이란 어떤 힘인지 알고 있겠지.

정남—예,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건은 모두 내리누르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공기도 우리를 내리누르는데 $1cm^2$에 1 kg의 무게가 누르는 힘을 1 기압이라고 합니다.

척척 할아버지—맞았어, 1 기압이란 그런 것이야. 그런데 바다'물은 무겁기 때문에 10m씩 깊어짐에 따라 1 기압씩 커진다. 동해에서 제일 깊은 바다 밑에서는 거의 400 기압, 태평양의 제일 깊은 곳에서는 약 1,000 기압 이상이나 되는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

정남—야! 굉장한데요.

척척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 봐라. 유리관을 천에 싸서 깊은 바다'물 속에 넣었다가 꺼내면 눈과 같은 흰 가루로 되고 만다. 그러기에 보통 철로 만든 잠수함들도 140m의 깊이만 들어 가면 압력에 파괴되고 만단다.

과학자들이 5,000m의 바다'물 속에 나무 쪼각을 넣었다가 꺼내 보니 나무도 압축되여 굳고 무거운 쇠'덩어리와 같은 나무로 되고 말았단다. 그러니 만약 바다'물 밑에 압력을 리용하는 공장을 건설한다면 모든 일을 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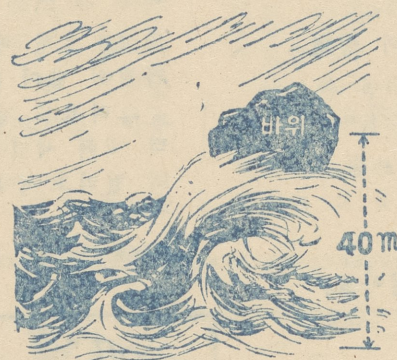
정남—그런 큰 압력을 가지고 있는 바다'물에서 물'고기들은 어떻게 사나요?

척척 할아버지— 그러나 물'고기들은 죽지 않는단다. 벌써 물'고기들은 그런 큰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나 바다의 깊이에 따라 특수한 모양을 하고 있단다. 례를 들면 깊은 데서 사는 가재미는 압력에 견딜 수 있게 넓적하게 생겼고 눈이 한 쪽으로 놀려 있단다. 또 어떤 물'고기들은 몸'집이 매우 가느다랗게 생겨 있단다.

그 뿐인가? 바다에서는 높 파도가 출렁이는데 이 파도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단다. 어떤 곳에서는 1,350 톤이 되는 방파제를 들어 넘기고 그 자리에는 2,600 톤이나 되는 다른 방파제를 날라다 놓은 일도 있단다. 또한 화란에서는 20 톤이나 되는 바위 덩어리를 40m의 높이에까지 들어 올렸다가 떨군 일도 있단다.

일동—야!

정남—할아버지, 이 번에는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밀물과 썰물을 우리들에게 리롭게 리용할 수는 없습니까?

척척 할아버지—거 좋은 생각을 했다. 왜 없겠니, 바다'물을 리용하면 큰 발전소도 건설할 수 있단다. 지금 우리 나라 과학자, 기술자 아저씨들이 연구한 데 의하면 서해안에서 1 년 동안에 400억 킬로 와트시의 전력을 얻을 수 있는

큰 발전소들을 건설할 수 있단다.

관삼—야! 바다에 어떻게 발전소를 세울 수 있어요?

척척 할아버지—세울 수 있구 말구. 우리 나라 서해안의 밀물과 썰· 차는 세계적으로 큰 데 인천에서는 8m 78cm, 포에서는 5m 70cm이고 룡암포에서는 5m 12cm나 된단다. 그러기에 해안에 큰 저수지를 막아 놓고 물이 들어 올 때의 힘을 리용하여 발전기를 돌게 하고 썰물이 나갈 때의 힘을 리용하여 발전기를 돌게 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단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서해안에는 곳곳에 이런 발전소들이 건설될 것이다.

춘길—할아버지, 정말 바다는 보물고구만요. 전기도 얻을 수 있으며, 물'고기도 얻을 수 있고 바다'물에서는 리 생활에서 필요한 약가지 뽑아 낼 수 있으니까요.

척척 할아버지—그렇구 말구. 그러니 바다야말로 《종합 공장》이라고 할 수 있지.

춘길—우리는 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몸을 단련하며 바다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바다에 있는 숨은 보화를 죄다 캐 내는 훌륭한 바다의 정복자가 되겠어요.

척척 할아버지—오냐, 그렇게들 해야지.

일동—할아버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척척 할아버지—시간이 없어 바다에 대한 많은 것을 다 이야기하지는 못 하였다. 앞으로 언제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지.

소년단원들 —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 번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김 남수

우가 솔섬에 있는 소년단원들의 야영소를 찾아 갔을 때였어요.

가라니 마침 활활 타오르는 우둥'불'가에 모여 앉아 즐거운 시 랑송 모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리는 그들 몰래 뒤에 가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이 번에는 춘형이 차례였어요. 그는 은같은 달'빛 아래 활짝 펼쳐진 바다를 다 보며 이렇게 읊었습니다.

> 동해 바다 푸른 바다
> 　　조국의 바다
> 아침 파도 금'빛 물'결
> 　　모래'불을 적셔요.
>
> 동해 바다 푸른 바다
> 　　언제나 고기 풍년
> 통통통 기계'배는
> 　　바다 멀리 나가요.
>
> 동해 바다 푸른 바다
> 　　희망의 바다
> 갈매기 너울너울
> 　　배'길 알려 날아요.
>
> 갈매기야 자랑 말아
> 　　바다는 나의 희망
> 멸잖아 나도 간다
> 　　너를 따라 간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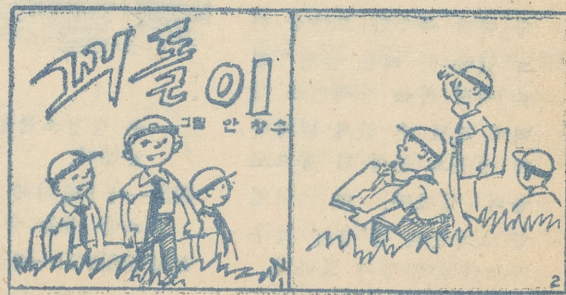
춘형이가 읊는 것을 듣고 있던 옥이가 그만 참지 못 하고 손'뼉을 크게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것을 알게 되자 분단 동무들은 아주 반가와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는 것이였어요.

남이는 춘형이더러 그 동요를 달래서 다시 한 번 읊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요가 참 잘 되였다. 정말 자꾸 읊고 싶구나. 내용도 좋고 흐름도 잘 째이고 어휘도 아주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을 골라서 알맞게 썼다.》고 칭찬했답니다. 그리고는 《푸른 바다》, 《금'빛 물'결》, 《모래'불》 《통통통》, 《너울너울》, 《멸잖아》 등을 모두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하였지요.

분단 동무들은 남이와 옥이를 빙 둘러싸고 앉아서 이야기를 재촉하였습니다. 남이는 《동무들, 저 우둥'불이 무슨 빛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제각기 대답했습니다. 《빨갛다》, 《빨겋다》, 《붉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벌겋다》, 《발갛다》, 《노라발갛다》…별의별 말이 다 나왔습니다.

남이는 벙글벙글 웃으며 《그 뿐입니까? 요기는 불그므레하고 조기는 불그스럼한데 저 쪽은 발그스름하고 그 저 쪽은 벌그스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모든 동무들이 손'뼉을 치며 하하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글쎄 우리 조선말은 붉은 불'빛 한 가지를 나타내는데도 그 색이 짙고, 옅고, 밝고, 어둡고, 맑고, 흐린 데 따라서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의 말이 쓰이니까요.

그리고도 남이는 《불》이 들어 간 말을 더 내려 세였어요. 동무들은 그만 입을 딱 벌리고 《야, 굉장하구나…》 하고 놀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갸웃하고 앉았던 희영이가 오뚝 일어 서며 이렇게 말했어요.

《동무들, 아까 남이 동무는 처음에는 빙글빙글 웃다가 우리가 한참 대답할 때는 벙글벙글 웃었는데 지금 말을 마칠 때는 싱글벙글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까르르 웃어댑니다. 이처럼 웃음도 《하하, 호호, 생글생글, 싱글싱글, 방실방실, 방긋방긋, 히물히물, 해죽해죽, 캐득캐득, 키득키득…》 세여 나가면 그 말이 수백 가지나 됩니다. 참으로 우리 말의 어휘는 아주 풍부하고 발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는 우리 말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무슨 소리던 못 내는 소리가 없고 외국 말도 어떤 나라 말이던 다 잘 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 말은 훌륭한 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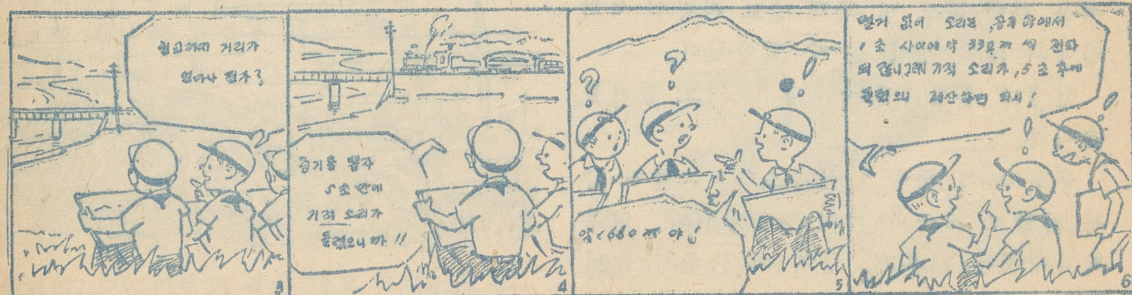
이 번에는 또 남이가 이런 문제를 꺼냈습니다. 《밥, 옷, 천, 집, 책, 새끼》를 《만든다》는 것을 《짜다, 매다, 꼬다, 짓다》 중에서 어느 말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니 《밥－짓다, 옷－짓다, 천－짜다, 집－짓다, 책－매다, 새끼－꼬다》와 같이 나타냅니다. 똑 같이 《만든다》는 뜻인데 이렇게 물건에 따라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세밀하게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말 어휘는 그 뜻과 그것을 나타내는 점에서도 아주 발달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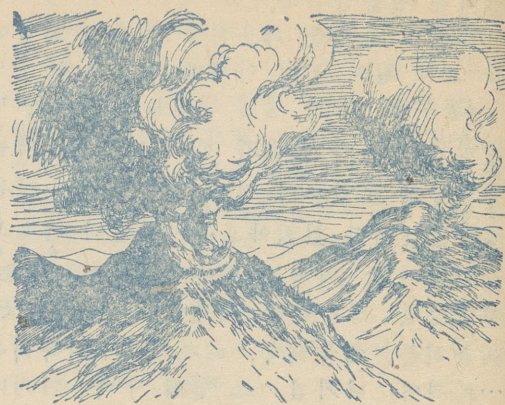
그런데 그 동안 춘형이가 적은 동요를 보고 있던 옥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처럼 어휘가 풍부하고 아름다운 조선말도 바로 쓸 줄 알아야 하며 바로 적을 줄 알아야 더 빛이 나지요.》 하고 말하면서 춘형이가 쓴 동요에 맞춤법과 띄여 쓰기가 더러 틀렸다고 하였지요. 《금빛》은 《금'빛》으로, 《물결》은 《물'결》로, 《뱃길》은 《배'길》, 《기계배》는 《기계'배》로, 《프른》은 《푸른》으로, 《너홀너홀》은 《너울너울》로 적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지요.

이번에는 옥이가 《여기 모두 서른 사람이 모였는데 〈서른〉이라고 어떻게 쓰며 열부터 백까지 열의 단위가 되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열》, 그 다음은 《수물》인가 《스물》인가, 또 《서른, 서룬, 설혼》 중의 어느 것인가, 《마흔》인가 《망흔》인가 다음은 《쉰》이고 그 다음은 《예쉰, 여쉰, 예순》 중의 어느 것인가, 다음은 《이른》인가 《일흔》인가, 《야든, 여든》 의 어느 것인가, 《아흔, 아훈, 앙흔》의 어느 것이 맞는가－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여러 동무들이 제각기 이거다 저거다 하고 떠들었지요. 옥이는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이라고 써야 옳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이와 옥이는 섬질네 분단 동무들이 아름답고 바른 말을 더 많이 배우며 바로 적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곳을 떠났습니다.

(만화)

화석 이야기

(2)

다음으로 원생대를 보기로 합시다.

원생대에는 시생대보다 모든 것이 좀 더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역시 바다가 많았고 륙지에는 동물이나 식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생대에서와 같이 불꽃이 활활 타 오르는 화산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생긴 돌들은 오늘 편마암이나 대리암으로 나타나는데 지금도 량강도 합수역 앞에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론 다른 종류의 돌들이 생겼습니다.

원생대에도 우리 나라는 바다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생대와는 달리 이 시기 바다에는 하등 식물들이 많이 살게 되였는데 이 식물이 죽어서 그 흔적으로 화석이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화석을 황해 북도 및 황해 남도 지방의 석회암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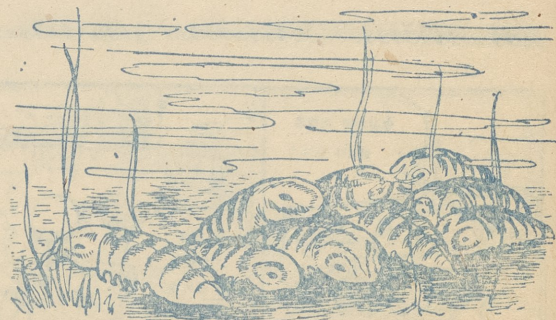
원생대 후반기에는 기후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우선 대기 중에 탄산가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지금과 거의 같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가 몹시 차서 물이 1년 내내 얼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원생대의 마지막 시기에 와서 이렇게 추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원생대에 우리 나라는 바다였으므로 이 바다에는 점토와 석회암이 많이 쌓이게 되였습니다. 점토는 그 후에 변해서 점판암이나 운모, 편암으로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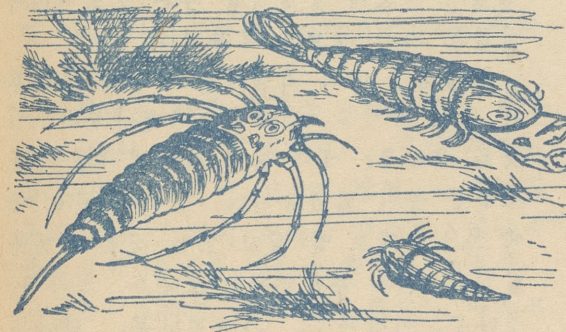
원생대에 생긴 암석은 황해 북도, 황해 남도 지방에 많고 이 외에도 평안 남도 상원 지방, 강원도 김화 지방, 철원 지방, 량강도 혜산 지방 등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석회암으로 황해 북도 마동에서 세멘트를 만들고 있으며 원생대에 생긴 점판암은 지붕을 덮는 스레트로 리용되고 있습니다.

원생대 다음인 고생대부터 지구는 아주 새로운 단계로 들어 갔습니다.

여러 가지 삼엽충

고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5억 7천만 년전에 시작하여 2억 2천 5백만 년 전에 끝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들어 와서는 동물과 식물이 비교적 더 발전했고 종류도 많아졌으며 그것들이 화석으로 잘 남게 되였습니다.

고생대의 동물들과 식물들은 모두 바다에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생대의 캄브리아기에는 삼엽충이라는 동물이 대단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캄브리아기에 많이 살던 이 동물은 약 6천만 년을 지나는 동안 점점 없어지면서 씰루르기에는 가재와 비슷한 절족 동물들이 번식하였고 이 외에도 낙지와 문어와 같은 두족류와 지금도 열대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산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씰루르기에 왕성한 바다 밑의 절족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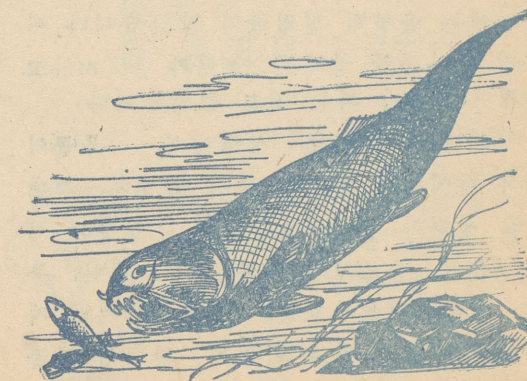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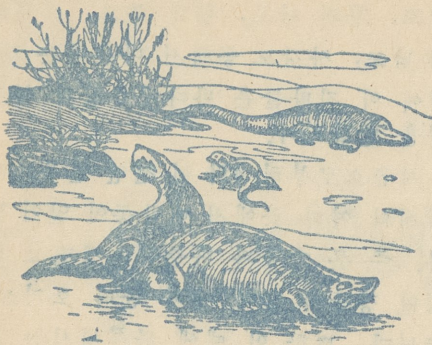
지금도 평안 남도 중화군, 황해 북도 황주군, 자강도 장강군, 만포군, 초산군, 위원군 등지에 삼엽충의 화석이 많습니다.

또한 평양의 송신동 뻐스 종점 부근에 있는 돌 속에는 삼엽충 화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두족류는 석회암 속에서 나옵니다. 승호리 세멘트 공장의 원료로 되는 만달산 석회암이라든가 황주의 두암산 석회암에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평안 남도 순천, 개천, 덕천, 함경 남도 고원 등지의 석회암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화석이 평안 남도, 황해 남도, 황해 북도, 강원도, 함경 남도, 자강도 등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때에 이 지방들은 바다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억 년 전인 씰루르기에는 세계의 여러 곳에서 대변동이 일어 났습니다. 즉 큰 습곡과 단층이 생겼고 바다로 있던 장소가 높이 솟아 올라 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때에 한쪽에서는 화산이 쉴새 없이 터지고 지진이 심하게 일어 났습니다. 이와 같은 지각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자연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씰루르기 이후 시기인 데본기에는 바다 면적이 많이 축소되고 높은 산들인 륙지가 생겼습니다. 바다 면적이 좁아지다 나니 생물들은 바다에서만 살지 못 하게 되고 차츰 륙지에서도 살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이 때에는 륙지에서도 식물이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식물들도 유치한 형태였습니다.

데본기에는 물'고기가 대단히 많이 살았습니다. 물'고기가 특히 많았기 때문에 데본기를 《물'고기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데본기에는 지금의 개구리와 같이 물 속에서도 살고 륙지에서도 사는 량서류란 동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씰루르기부터 석탄기

데본기의 물'고기.

고생대의 량서류

까지 바다가 없었습니다. 그 후 석탄기 말에 바다가 들어 왔다가 지금으로부터 2억 7천만 년 전인 페름기 초에 다시금 물러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북부 지방인 두만강 중류 지대와 하류 즉 함경 북도 유선,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 웅기 등 지방은 석탄기와 페름기에도 바다에 잠겨 있었습니다.

석탄기에는 량서류로부터 지금의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가 새로 생겼습니다.

데본기 이후 시기에는 좀 더 고급한 식물들이 륙지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의 고사리와 같은 형태를 가진 큰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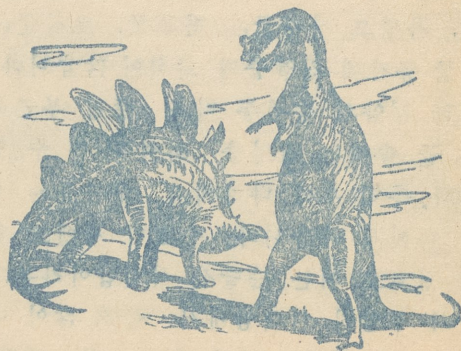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 석탄기와 페름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별되지 않고 계속 무덥고 습기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울창한 밀림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의 나무들 중에는 높이가 30 m이고 직경이 2 m나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울창한 산림에서 나무들이 죽어 넘어지고 또 땅 속에 묻히게 되여 결국 석탄이 형성되였습니다. 평양의 사동, 삼신, 승호리 일대와 강동, 개천, 북창, 구장, 덕천, 고원, 문천 등 여러 지방의 무연탄은 바로 이렇게 형성된 것들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여 3억 4천 5백만 년이나 계속되던 기나긴 고생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시대인 중생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중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2천 5백만 년 전에 시작되였습니다. 중생대에는 생물들이 대단히 발전하였습니다. 식물들 중에서 가장 많았고 왕성한 것은 라자 식물이였습니다. 라자 식물이란 씨를 가진 열매가 달리는 식물인데 이 씨가 어떤 물질에 꼭 둘러 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의 솔'방울과 같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대에는 이 라자 식물이 대단히 왕성했기 때문에 중생대를 다른 말로 《라자 식물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중생대의 라자 식물에는 지금의 소나무와 같은 송백류, 지금의 은행나무와 비슷한 은행류, 지금 열대 지방에서만 사는 소철류 등이 있었습니다. 라자 식물들 중에 오늘까지도 잘 살고 있는 것은 송백류입니다. 현재 송백류에는 소나무, 잣나무, 젓나무,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향나무 등이 속합니다. 이것들은 중생대에 왕성했던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의 나무들은 시간이 흐르며 시대가 바뀜에 따라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나 버드나무에 비해서 소나무를 살리는 것이 더 힘든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생대의 파충류

중생대의 날아 다니는 파충류.

은행나무도 옮겨 심어서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이 종류가 중생대에 대단히 잘 자랐으나 지금은 시들어져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대의 라자 식물은 지층 속에 화석으로 많이 남게 되였습니다. 평양 지방의 땅 속에서도 이런 화석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강북산 밑의 삼첩기 지층과 평양시 중심부의 유라기 지층들 속에는 소철류, 은행류 그리고 송백류의 화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로서는 파충류가 많았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륙지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물 속에서 사는 것도 있었고 어떤 것은 공중을 날아 다니는 것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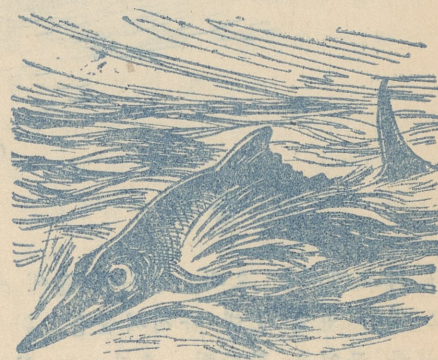
파충류에는 괴상하게 생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았습니다. 어떤 놈은 몸의 길이가 40 메터나 되는 것도 있었고 어떤 놈은 꼬리가 10 메터나 되여 꼬리를 한 번 휘두르면 적들이 맞아 죽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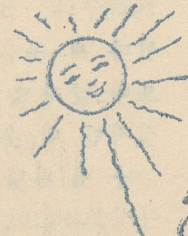
중생대의 유라기에는 날아 다니는 파충류가 발전하여 그것으로부터 새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생긴 새들은 오늘날의 새들처럼 잘 날지 못 하는 락후한 종류들이였습니다.

중생대에 우리 나라에는 바다가 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대 바다 속에서 많이 살던 두족류 화석은 우리 나라 중생대 지층 속에는 없습니다.

중생대 물 속의 파충류.

(다음 호에 계속)

이것을 아십니까?

해'빛은 왜 뜨거울가요?

해'빛은 원래 색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각 프리즘에 해'빛을 비치면 해'빛은 적색, 등색, 황색, 록색, 청색, 남색, 자색 등 일곱 가지 색으로 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적색, 등색, 황색을 붉은 색 부분이라고 하며 록색, 청색, 남색, 자색을 푸른 색 부분이라 합니다. 그런데 푸른 색 부분의 빛들은 물체에 부딪치면 열을 내는 성질이 없지만 붉은 색 부분의 색들은 물체에 부딪치면 열을 내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해'빛이 뜨거운 것은 바로 해'빛 중 붉은 색 부분이 열을 내기 때문에 뜨거운 것입니다.

(소설)

신호탄은 어디서 울렸나?

(2회)

김 룡 악

그림 맹 동 원

우리 학교에서는 요새 밤나무'골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 군대 아저씨들을 위한 예술 써클 공연을 활발히 준비하고 있어요. 꾀꼴새로 그 《명성》이 높은 보옥이는 물론 독창 가수로 출연하게 되였고 나는 조 기천 선생이 쓰신 《조선은 싸운다!》란 시를 읊게 되였어요.

내가 시 랑송을 끝마치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려 집을 향해 걷고 있는데 삭정이를 한 짐 해 지고 타발타발 마주 걸어 오는 한 소녀가 있질 않겠어요. 바로 그 처녀애 말이예요.

그 애 이름은 금희였어요. 며칠 전에 선생님과 같이 그 애 집을 찾아 갔었는데 그 때 그 애 이름을 알았어요.

《금희야!》 난 그 애 앞으로 막 뛰여 갔어요.

《너 나무 하러 갔었니?》

《…………》

금희는 숨이 차서 할할거리며 나를 빤히 쳐다보겠지요. 여전히 그 지친듯한 눈'길로 말이예요.

《얼마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너희 집에 갔었어. 넌 그 때 어디 심부름 갔었다구 하더구나. 그 날 너희 아버진 선생님께 말이다 새 옷을 한 벌 해 입히구 널 학교에 보내 준다고 했어. 당장 학교엘 보내군 싶지만 네 옷이 없대!》

난 신'바람 나서 이야길 했어요. 그런데 이상도 해요. 글쎄 그 처녀애는 기뻐하지도 않고 그저 새침해서 그 자리에 오뚝 서더니 발끈 고개를 딴 데로 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참말 어쩜 이 애가…

《아니 얘!》 나는 어리둥절해서 그 애를 쳐다보았어요.

《너 왜 그래?》

처녀애는 여전히 새침해서 아무 말 없이 나를 뚫어지듯 쳐다보다가 그저 이렇게 툭 내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집에 다신 오지 말어……》

《…………》

나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무엇때문일가? 암만 생각해 봐도 이 애의 마음을 알 수 없거든요.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겼니?》

영문을 몰라 내가 이렇게 다우쳐 묻자 처녀애는 새침해서 그만 나무'단을 이고 타발타발 걸어 가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몇 걸음 그 애의 뒤를 따르며 소리쳤어요.

《금희야! 금희야!》

《…………》

그래도 그 처녀애는 돌아 보지도 않고 내쳐 걷거든요. 누가 따라 잡지나 않나 해서 막 서두르며 말이예요.

난 은근히 그 애가 아니꼽기까지 했어요.

《힝, 무슨 애가 저래…》

난 한동안 그 애의 뒤'모습을 언짢게 바라 보았어요. 그리고 황황히 집으로 걸었어요.

지름'길을 벗어난 내가 막 내'가를 건느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를 찾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희야!》

돌아다 보니 마을 세포 위원장 아저씨가 나에게로 다가 오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있은 일로 하여 어찌나 기분이 언짢았던지 나는 앞을 살필 경황도 없었거든요.

《너 이제야 학교에서 돌아 오니?》

《네… 근데 아저씨, 저 금희란 애 말이예요……》

《금희라니……저 벼랑 밑에 있는 초가집 애 말이냐?》

《예!》

난 아저씨 곁에 바싹 다가 서며 방금 전에 있은 일을 죄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집 어른들 나빠요. 글쎄 금힐 학교에 인차 안 보내 주거든요. 그런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별란 사람두 다 봤어요!》

아저씨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말없이 걷고 있더니 이윽고 나의 얼굴을 쳐다보셨어요.

《그 애는 고아다. 부모 없는 애란 말이다!》

《네?!》

나는 이 말을 듣고 어찌나 놀랐던지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저씨도 그 자리에 섰어요.

《왜 넌 아직 몰랐었니? 그 애는 너머 마을 서리'골이란 곳에서 살았단다. 후퇴 때 미국놈들이 그 애 부모들을 집안에 가둬 넣고 불을 질러 죽였단다. 열성 농민이라구 말이다. 요행 이 애만이 살아 났단다. 뜰 안의 독 안에서 말이다.》

(아하, 아저씨는 죄다 알고 있었구나.)

나는 아저씨의 말을 통해서 비로소 그 애가 그 집의 《양딸》로 들어 간 사연을 알게 되였어요.

《근데 왜 그 앤 하필 그 집에 들어 갔어요? 그 집 사람들은 나빠요. 그 앨 학교에도 보내 주지 않는 걸요 뭐, 그런 양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 같으면 그 집을 뛰쳐 나오고 말겠어요……》

내가 어찌나 속이 타서 기를 쓰고 우겼던지 아저씨는 빙그레 웃기까지 했어요.

《그 애두 인제 공부하게 될 게다.》

아저씨는 갈림'길에서 헤여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자, 이걸 그 애에게 줘라. 이건 공책

이다. 짬짬이 그 애를 찾아 가서 네가 학교에서 배운 글을 그에게 가르쳐 줘라!》 하시였어요.

아저씨가 주시는 신문지로 곽 싼 여러 권의 공책을 받아 든 나의 가슴은 순간 후더워졌어요.

3

이튿날 난 그 공책을 가지고 다시 금희네 집을 찾아 갔어요. 어제'일 같아서는 찾아 가고도 싶지 않았지만 그 애에 대한 세포 위원장 아저씨의 각별한 심정을 보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애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고 싶었거든요.

마침 그 애는 양지바른 토방에 오도카니 앉아서 실토리를 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애는 날 보고 화닥딱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잘 있었니?》

《………》

내가 그 애 앞으로 다가 서며 고개 인사를 하자 그 애는 서둘러 주위를 살피거든요.

《너 혼자냐?》

내가 이렇게 재차 묻자 그 때야 금희는 나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버진 어디 갔니?》

《장에 갔어.》

《그래?…》

난 세포 위원장이 주신 공책을 그 애 앞에 내놓았어요.

《자, 받어. 이 공책 말이지, 세포 위원장 아저씨가 보내 준 거야.》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 애는 가슴에 두 손을 꼭 모두어 쥐고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날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아저씨가?》

금희는 그저 이렇게 환희에 차서 부르짖고는 내가 내민 그 공책을 선뜻 받지를 못 해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이예요.

《어서 받어!》

내가 그 애의 손에 공책을 쥐여 주자 처녀애는 흑—하고 흐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울먹거리며 이렇게 말하거던요.

《그 아저씬 내게 옷감두 사다 줬어. 그저께 우리 집에 왔었어…》

《그래?》 나도 금희보다 못지 않게 기뻤어요.

《야, 그럼 넌 인차 학교엘 갈 수 있어. 너의 아버지두 말야 새 옷 한 벌 해 입히지 못 해서 널 학교에 못 보낸다고 했거든, 하지만 이젠…》

《아냐!》 금희가 내 말을 가로챘어요.

《그래두 난 못 가.》

《왜?》

《……》

난 놀라며 그 애를 쳐다보았어요. 처녀애는 고개를 떨구며 발끝만 내려다 보거든요.

《좋아, 그럼 선생님이 또 찾아 올 거야, 세포 위원장 아저씨두 말야…》

그러자 처녀애는 얼굴이 빨개지며 기를 쓰고 반박해 나서잖아요.

《싫어, 난 싫어, 그러문 난 아버지한테 욕 먹어, 매 맞아.》 하고 말이지요.

난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도무지 금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원 참…글쎄 우리가 뭐 나쁜 사람들이냐?》

《…》

내가 이렇게 묻자 처녀애는 이 말엔 잠자코 있다가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두…우리 아저씨가 말야, 다시 찾아 오게 하면 날 집에서 내쫓겠다구 했어!》

《아저씨가?》

《응…》

금희는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

참말 이상한 일이예요. 금희네 집엔 그의 양부모와 금희 밖엔 다른 사람이 없는데…난 아무래도 수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한 번 물었어요.

《너희 집엔 아저씨도 같이 사니?》

《아냐, 어딘가에서 산다는데 딱히는 몰라, 이따금 밤마다 오군 해!》

《내가 하루'밤 자다가 눈을 뜨니까 울 아버지와 무슨 이야길 하더라, 아버진 날더러 그 사람이 삼촌'벌 되는 아저씨래.》

《어떻게 생겼면?…》

《키가 작구 얼굴이 넓적하구…그리구…

옳아, 옳아, 귀 밑에 말이지 대추 알만한 혹이 있드라…》

《뭐?》

나는 어찌나 솟으라쳐 놀랐던지 손에 쥔 책가방을 땅에 떨구었어요.

(강 석필이 놈이?…)

이런 생각이 들자 막 숨'결마저 가빠졌어요.

이번에는 금희가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

나는 치가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놈은…그 놈은 나쁜 놈이야, 악질지주야. 그 놈이 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어. 마을 사람들두…》

《너희 아버지두?》

금희는 솟으라쳐 놀라며 손'가락을 입에 무는 것이예요.

《응……그 놈은 원쑤야, 도망쳤던 악질지주야.》

바로 그 때였어요.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나는 자신도 모르게 흠칠 놀라며 그 쪽으로 힐끔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자 찌궁 하고 대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마나…)

나는 그만 기겁을 해서 담'벽에 바싹 다가 섰어요. 금희는 얼굴이 까맣게 질리구요.

뒤'걸음치며 대문 안에 들어 서던 사람은 연신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애, 뭘 그러구 있어, 어서 대문을 걸어.》 하고는 몇 자국 방문께로 가는 것이예요. 틀림없는 강 석필이란 놈이 아니겠나요. 난 막 가슴이 방망이질 하듯 두근거렸어요.

(어쩌면 좋을가?)

그런데 금희가 얼른 눈'짓을 하며 대문을 거는 척 하면서 나를 대문 밖으로 내보내 주는 것이였어요.

대문 밖에 나온 나는 담모퉁이에 숨어 울바자 사이로 안을 엿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놈이 그제야 무슨 기미를

알아 챘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자 누가 오잖았댔니, 넌 여기서 뭘 하댔니? 엉》

《아무도 안 왔댔어요, 소변이 마려워 방금 나오던 길이였어요.》

금희는 내가 왔댔다고 하면 아마 욕을 볼가봐 속이는 것 같았어요.

마침 이 때 《대문 열어…》 하고 저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장에 갔다던 금희의 양아버지가 돌아 오는 모양이였어요.

금희의 양아버지를 본 강 석필 놈은 서둘러 그 앞에 다가 서며 무어라 귀'속말로 말하는 것이였어요.

나는 어쩐지 가슴이 후둘후둘 떨리는 게 도무지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귀'속말로 소근거리는 것이여서 딱히 듣지는 못했으나 그 무슨 심상찮은 음모를 꾸미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집이 간첩 소굴이였구나!)

난 막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난 용기를 내고 귀를 바싹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글쎄 이런 말이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래일…써클 공연에는 인민 군대들이 많이 모인다면서…》

《헤헤…그런가 봅니다. 이 번에야 명락없이 신호총으로……》

(뭐?……)

순간 나는 하마트면 소리를 지를 번 했어요. (개놈들!)

(다음 호에 계속)

꽃씨 받는 법과 보관법

꽃씨는 좋은 꽃나무를 골라서 탐스럽게 잘 여문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꽃씨는 꽃나무의 특성에 따라 누렇게 익어 가는 시기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꽃씨는 맑은 날에 받아야 합니다.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 꽃씨를 받으면 습기가 있어 썩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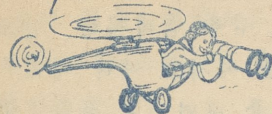
또한 꽃씨는 종자의 특성에 따라 오전, 오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봉선화, 채송화, 빤지, 후록소 등은 해'빛이 몹시 쪼이는 낮에 받으면 흩어지므로 오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늦은 저녁은 나쁩니다.

꽃씨 받는 방법은 꽃에 따라 다릅니다. 례를 들어 채송화, 아렁숨, 로베리야, 계두화, 꽃담배 같이 씨가 작은 꽃나무에서 꽃씨를 받을 때에는 두터운 종이로 깔때기 모양을 만들어 그 밑에 통을 달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루비야, 금어초, 백일홍, 만수국, 석죽, 쎈또리야, 해바라기 등과 같이 꽃씨가 큰 것은 꽃가위나 손톱으로 줄기까지 함께 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루비야 같은 종류는 꽃이 진 후 누런 색을 띠기 전에 따야 합니다. 그리고 분꽃, 금련화 같은 꽃들은 완전히 익기 전에 꽃씨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종자들은 습기가 없는 그늘에서 2~3 일 간 말리워 보관해야 합니다.

종자의 보관은 자루에 넣어 온돌'방에 달아 매 둔다든가 상자에 넣어 선반에 올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보관 장소의 온도는 0~5도가 적당하며 습도는 65~70%가 좋습니다.

차돌이의 세계 려행

라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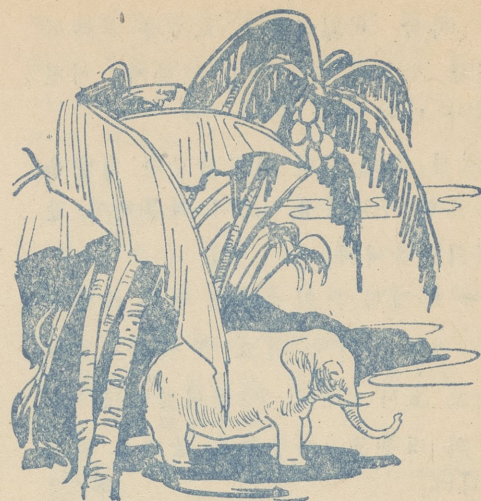
류 시 호

인도지나 반도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 우리 차돌이 일행은 캄보쟈 방문을 끝내고 메콩강 기슭을 따라 북쪽으로 거슬러 오르면서 라오스의 여러 지방을 찾아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인도지나 반도에 있는데 동북쪽으로 월남, 남쪽으로 타이와 캄보쟈, 북쪽으로 중국과 잇닿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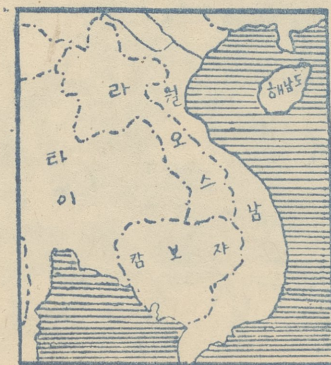
이 나라는 236,800 평방 키로 메터의 면적에 350만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그리 크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는데 14 세기에는 란산 왕국이 있었고 그 후에는 루앙프라방 왕국이 있었답니다. 1893년부터는 불란서 침략자놈들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 후 제 2 차 세계 대전 때에는 일본 제국주의놈들의 침략을 받았고 일본놈들이 망한 뒤에는 또다시 불란서 침략자들이 기여 들었습니다.

그 후 이 나라는 1945년 제네바 회의 결정으로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를 세우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책동으로 민족 통일 정부는 여러 번 파괴되였으며 지금도 미 제국주의 놈들은 1962년에 세워진 민족 통일 정부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난 4월 19일 반동들을 추겨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를 반대하는 군사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앞잡이 도당들의 어떠한 책동도 일어나 싸우는 라오스 인민들의 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나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으로 가는 도중 어느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어데선가 전투 비행기가 산'봉우리를 핥으면서 미친듯이 날아 가자 그 뒤를 이어 수송 비행기들이 수 없이 날아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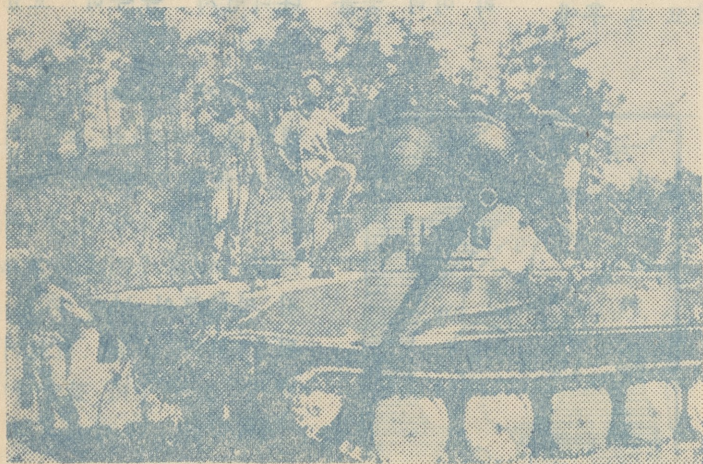
《얘들아, 저 비행기를 좀 보렴! 저것은 모두 미국 놈들의 비행기란다. 저 망

할 놈의 미국 비행기들은 노사방 군대에게 무기를 실어다 주느라고 저렇게 미친 듯이 날아 다니고 있단다……》

거기에서 놀고 있던 까무잡잡한 얼굴을 한 아이들이 우리들을 보며 격분하여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우리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소년들은 모두 머리를 박박 깎고 중 옷을 입었는데 알고 보니 《아이 중》들이였습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곳을 떠나 수도 비엔티안에 들렀습니다. 이 나라는 가는 곳마다 코끼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짐을 나르는 데 이 코끼리를 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엔티안에서 3 km 떨어져 있는 퐁켕에 들렸습니다. 여기에서는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가 반동들과 용감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곳은 1959년 7월에 애국당 지도자 수파누봉과 그의 전우들이 미제놈들과 그의 앞잡이놈들에게 붙잡혀 갇히였던 곳이였습니다.

적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 땅크병들.

수파누봉과 그의 전우들이 갇히여 있던 퐁켕 감옥은 어마어마한 철조망으로 몇 겹 둘러 싸여 있고 감옥 둘레에는 탐조등이 밤새도록 사방을 비치고 여러 대의 땅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늘 감옥 주위를 돌고 있었답니다.

미국놈들은 이렇게 해서 라오스의 애국자들을 없애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파누봉과 그의 전우들은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라오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있던 헌병들도 차차 누가 라오스 인민의 원쑤라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마침내는 헌병들이 직접 그들이 빠져 나갈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4 년 전에 있은 이 감격적인 일을 돌이켜 보면서 수파누봉이 감옥에서 빠져 나와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당시 그가, 싸우는 근거지로 찾아 가던 그 길을 따라 북쪽으로 려행을 계속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와 애국적 라오스 인민들은 원쑤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기면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도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는 미제와 노사방 도당의 한 개 정예 대대를 멸살시켰으며 지난 4월에는 반동들이 차지하고 있던 푸산 산악 지대를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파테트》라는 말은 라오스 말로 《인민》이라는 뜻이며 《라오》는 《라오스》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는 라오스 인민의 진정한 군대였습니다.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는 1949년 1월에 수파누봉의 지도 밑에 조직되였습니다. 처음 25 명의 적은 인원으로 조직된 이 부대가 오늘은 라오스 전 지역의 4 분의 3을 해방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북쪽으로 올라 갈수록 산이 높습니다. 높이 2,761 메터나 되는 푸산산을 비롯하여 2천 메터 가까이 되는 산들이 많이 솟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히엥콩 근방에 있는 어느 한 농촌에 들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곳 농민들은 모두 화전을 부치며 농사를 하고 있었는데 생활은 그리 넉넉지 못 했습니다.

이 나라는 철도가 없어서 교통이 불편한 데다가 5월부터 10월까지는 홍수가 많이 나서 교통이 자주 중단되군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찌그래이와 주석, 연, 철, 만강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데 지난날 이 모든 재부들을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모두 빼앗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인민들은 계속 구차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 때에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아는 이 나라 인민들은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를 돕기 위하여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려행 도중에서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와 인민들이 어떻게 힘을 합치고 있으며, 인민들이 어떻게 유격 투쟁에서 용감히 싸우고 있는가를 똑똑히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킨 것은 녀성 유격대장 랑 캉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라오스에서 이 녀성 유격대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17 년 간이나 혁명 투쟁을 해 온 40 세가 넘은 어머니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이도 있는데 그들은 지금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의 포병 사수가 되기 위하여 군사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높이 솟아 있는 이 나라의 산'봉우리들과 같이 원쑤놈들을 반대하여 일어 선 라오스 인민들의 거세찬 힘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라오스를 떠났습니다.

구름은 왜 밀려 다닐가요?

구름이란 륙지나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일정한 높이에 올라 가서 한데 모여 이루어진 수증기의 뭉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빽빽한 곳으로부터 성긴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은 하늘 높이에서도 붑니다.

바로 구름이 밀려 다니게 되는 것은 공기의 흐름 즉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구름이 서쪽으로 흘러 간다면 그것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의 힘에 구름이 밀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 화)

용감한 새끼개구리

(2 회)

배 풍

바로 이 때였습니다. 까치 새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던 휘파람새가 날아 왔습니다. 휘파람새는 까치 새끼를 구원하려고 《호이호이 호르륵! 호이호이 호르륵!》 휘파람을 되새게 불며 까치 새끼 우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운을 얻은 까치 새끼는 간신히 기를 써서 낮은 나무'가지 우에 날아 앉았습니다. 하지만 표독스러운 뱀은 몸을 절반이나 쳐들고 혀를 날름거리며 금시 집어 삼킬듯이 달려 들었습니다.

《호이호이 호르륵!》 휘파람새는 새끼 까치에게 기운을 불어 넣어 주기라도 하듯 울어 댔습니다. 뱀의 주둥이가 까치 새끼의 꼬리에 와 닿을려는 순간 까치 새끼는 또 한 번 깃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간신히 또 다른 나무'가지 우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러자 뱀이란 놈은 약이 오른듯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나무에 기여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나무'가지 끝에 앉은 새끼 까치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새끼 까치는 그새 숨을 태워 또 한 번 더 높은 가지에 올랐습니다.

이리하여 까치 새끼는 간신히 구원되였습니다. 그러나 악독한 뱀은 그만 닭 따라 가던 개 지붕 쳐다보듯 멍하니 대가리를 들고 섰다가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몸을 털썩 떨구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품이 이제는 아마 개구리 새끼라도 잡아 먹어야겠다고 찾는 모양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새끼 개구리도 제 갈 데로 간 뒤였습니다. 이제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뱀이란 놈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을 번 했던 새끼 까치를 구원해 놓고도 모든 새들은 헤여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까치네 집으로 몰려 왔지요.

잃을 번 했던 자기 새끼를 구원해 놓고 새끼 까치의 흥클어진 털들을 쓸어 주며 엄마 까치는 말했습니다.

《너 다시 또 그럴테냐? 엄마가 뭐라고 하던?》

《엄마, 다시는 안 그럴테야, 이젠 엄마 말 잘 들을래요.》

하고 새끼 까치는 엄마 까치의 품에 안겨 그만 깟깟 울음을 터뜨렸지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새끼 개구리도 많은 것을 뉘우쳤습니다. 이 때 딱다구리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지요.

《우리가 오늘은 새끼 까치 녀석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 래일은 또 누가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그 놈의 악독한 뱀을 이 세상에 그냥 두고는 하루도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 모두 힘을 합쳐 그 놈의 뱀의 무리를 쳐 없애야 한다.》

딱다구리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그 말이 옳다고 하면서 간악한 원쑤놈을 쳐 없애야 한다고 모두 격분에 차 이야기했습니다. 뱀은 본래 놀고 먹는 건달'군으로서 남의 새 알을 훔쳐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 새끼를 잡아 먹든가 개구리들을 잡아 먹는 공동의 원쑤이지요.

《기어이 원쑤를 갚고야 말자!》

《음흉한 뱀놈을 당장 물리치자!》

하며 원쑤놈을 찾아 길을 떠나자고 하였습니다.

새끼 개구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 힘으로 원쑤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을 번 한 새끼 까치를 볼 때마다 여간만 미안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놈의 뱀을 어떻게 쳐 없애야 할지 좋은 생각이 누구에게나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별 수 있나요? 아무리 궁리해도 우리들이 모두 힘을 합쳐 그 놈을 쪼아 주고, 때려 주고 해서 죽여야지요.》

하고 딱다구리가 이제라도 뱀이란 놈이 있으면 당장 요정 낼듯이 화가 나서 말하였지요.

《하여간 우리는 단결해서 원쑤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새끼들을 잘 간수하라구요.》

휘파람새도 머리를 꺄웃거리며 궁리하다가 뾰족한 수가 나지 않는 모양인지 딱다구리가 하는 말에 그저 동의해 나섰습니다.

새끼 개구리는 두 눈을 깜박거리며 새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저 혼자 딴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뱀을 없애 치울가?) 하고 말이지요.

간악한 뱀은 한 번 왔던 길은 잊지 않고 끝장이 날 때까지 집

요하게 찾아 다닌답니다. 새끼 개구리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가슴을 치고 나서 한 마디 하였습니다.

《까치님, 그 놈의 원쑤는 내가 꼭 갚고 말테야요. 난 그 놈이 찾아 다니는 길목마다 올가미를 놓아 목에 걸어 잡아 죽일테야요.》

하고 말이지요. 그러자 모든 새들은 새끼 개구리를 내려다 보며 소곤거렸습니다. 새끼 개구리의 말이 그럴듯 하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참 똑똑하고 신통하고 령리하고 대담하고 용감하다고요. 이 말을 듣고 푸들푸들 떨기만 하던 엄마 개구리도 입이 벌려지며 싱글싱글 웃으며 새끼 개구리의 잔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저 내 새끼야! 철 없어 무서운 것 몰라 야단이지만 엉뚱한 생각은 고작 잘 해!》

하며 기뻐하였어요.

바로 이 때였습니다.

때마침 황소 한 마리가 풀을 뜯어 먹으며 지나 가다 새끼 개구리가 하는 말을 듣고

《으흐흐, 뱀이 네가 만든 올가미에 걸려 죽겠다면? 만약 한 놈을 잡아 치웠다가 그 놈들이 무리로 달려 오면 어찌겠니. 뱀이란 놈은 한 놈이 죽으면 온 집안 식구가 달려 든단다.》

하며 황소는 새끼 개구리를 보고 어이 없다는듯이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소리 없이 씩씩 웃어댔습니다.

《황소님, 그럼 뱀은 어떻게 하면 잡나요? 네? 황소님, 가르쳐 주세요.》

《뱀은 담배를 먹여야 꼼짝 못하고 죽느니라.

그리고 개구리들이 담배를 먹고 즙액을 뿌리기만 해도 꼼짝 못 하지! 그래그래 담배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뱀은 달려 붙지 못 해! 그래서 너희 개구리들은 조상 때부터 담배 꽁다리나 대'진을 얻어 먹느라고 부리나케 싸다녔단다!》

《황소님, 그럼 담배 꽁다린 어델 가야 얻을 수 있나요?》

《허허, 그걸 알면 네가 가서 얻어 올 수 있냐?》

《있어요. 황소님 네! 어델 가야 얻을 수 있나요?》

《으흐흐, 글쎄 꼬맹이가 그걸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 그런 소리 말구 어서 집에 가만 있기나 해라.》

하며 황소는 새끼 개구리가 작다고 얕잡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럼 황소님만 하면 되나요?》

《어허, 요것이 차차 안 하는 소리 없네. 그래그래 나만 하면 될 수도 있지! 그런 재간이 있냐?》

하고 황소는 새끼 개구리가 너무도 맹랑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떠보는 것이였습니다.

《있어요. 황소님 좀 보실래요?》

새끼 개구리는 배를 힘껏 불려가지고 북처럼 두 손으로 펑펑 쳤어요.

황소는 그만 깜짝 놀라 눈이 휘둥글해졌습니다. 새들도 어쩐영문인지 몰라 눈이 둥글해지구요. 엄마 개구리는 두 눈을 지르감고 새끼 개구리의 배를 어루만지며 그만 두라고 푸들거렸어요. 고무풍선처럼 똥똥 부른 새끼 개구리의 배가 금방 터질 것 같아 무서웠으니까요.

새끼 개구리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쌔글쌔글 웃었어요. 황소도 그만 새끼 개구리의 용감하고도 당돌하게 생긴 데 감복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담배 꽁다리를 구할 수 있을 재 너머 목장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어요.

《엄마, 내가 갔다 올게요!》

그러나 엄마 개구리와 새들은 개구리를 보냈다가 또 뱀에게 봉변이나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근심어린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며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분!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동산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새끼 개구리의 용감성에 모두 감탄해서 더는 말리지 못 했습니다.

《자, 그럼 내 등에 타거라!》

황소는 세찬 코'김을 한 번 힝하고 내쉬고 엎드렸다 펴더니만 씽씽 걸어 갔습니다.

새끼 개구리는 황소 등을 타고 수로를 건느고 재를 넘었어요. 거기는 정말 젖소들이 많았습니다. 동이만한 뚱뚱 젖을 데룽거리며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젖소랑 또 저희끼리 힘내기를 하는지 받기 놀음을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밀면서 토닥거리는 송아지들도 있었지요.

《이젠 다 왔다.》

새끼 개구리는 소 잔등에서 깡충 내리뛰였지요.

아, 그랬더니 이게 웬 수가 났을가요! 정자 나무 밑으로 다가가니 담배 꽁다리가 여기저기 정말 널려 있지 않겠어요. 소몰이 아저씨들이 쉴참이면 여기에 앉아 담배를 피우군 하였지요.

새끼 개구리는 열른 담배 꽁다리를 한두어 개 꿀꺽꿀꺽 집어삼키고 나머지는 모두 주어 풀'잎보자기에 싸서 허리춤에 꼭 질러 넣었습니다. 황소는 두 귀를 발쭉 세우고 눈이 둥글해졌지요. 새끼 개구리가 정말 용감하다고요. 하긴 담배 꽁다리를 써서 먹지도 못 하고 뱀을 보면 무서워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던 자신이 부끄러웠으니까요.

《야 야, 너 정말 용감하구나! 어서 그걸 다 먹고 뱀을 이겨라!

그러면 내가 담배 꽁다릴 얼마든지 구해 줄테다.》

《예, 고마와요!》

새끼 개구리는 진심으로 황소에게 감사를 드렸어요.

《잘 가라! 조심해서…》

《일 없어요. 이걸 가지구 가는데도 그 놈이 덤벼 들라구요 뭐.》

황소도 기뻐서 두 귀를 살래살래 저으며 새끼 개구리를 바래주었습니다.

새끼 개구리는 기분이 좋았지요. 담배 꽁다리를 싼 풀'잎 보자기를 회초리에 꿰서 둘러 메고 깡충깡충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경각성은 높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사방을 휘돌아 보며 조심조심 걸었지요.

담배를 먹고 나니 어쩐지 새 힘이 부쩍부쩍 솟아 나는 것만 같았고 당장 이제라도 뱀을 만나면 물리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새끼 개구리는 줄곧 어떻게 하면 그 놈의 뱀을 단번에 족쳐 없앨가 하는 생각을 하며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런데 어데서인지 졸졸 내'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옳지!》

새끼 개구리는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그 쪽으로 뛰여 갔어요.

《졸졸졸졸》

둥성이로 넘어 가는 수로'물이 맑게 흘렀습니다.

《옳지 됐다.》

새끼 개구리는 어데선가 석가랑'잎을 하나 따서 수로'물 우에 띄우고 매생이처럼 난딱 올라 탔습니다. 눈'불이 아찔하게 뻗은 수로 량옆으로 방금 낸 파란 모들이 불어 오는 초여름 바람에 한들한들 춤을 추며 키돋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동산은 얼마나 좋은 동산인가!》

그에게는 어느새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노래가 나왔습니다. 가고 또 갔습니다.

석가랑'잎은 정말 배처럼 깨울거리며 잘도 갔어요.

(다음 호에 계속)

19) 어느덧 추석날이 왔다.

욕심 많은 놀부네 령감, 할미는 병신 자식들인 째보와 꼽새둥이를 불러다 놓고 게걸스레 고기를 뜯어 먹고 있었다. 그리고는 《추석날이라고 흥부네 거지 새끼들이 찾아 오면 시끄럽다.》고 하면서 마당쇠를 불러 대문을 닫게 하였다.

20) 같은 추석날이지만 흥부네 집에는 먹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생각다 못 해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어 커다랗게 여문 박을 타서 먹기로 하였다.

21)《슬금 슬금 톱질이야, 당겨 주소 톱질이야, 가난타고 설어 마오, 팔자 굳어 가난한가, 벌어도 가난하고, 품팔아도 가난하니, 이 세상이 원망쿠나.
슬금 슬금 톱질이야, 당겨 주소 톱질이야.》

22) 그런데 박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왔다.
이게 무슨 소릴가?
흥부도 그의 안해도 애들도 모두 놀라 박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23) 별안간 박에 금이 나더니 궁궐 같은 기와집이 생겨났다. 새 집에서는 청의동자(청색 옷을 입은 총각)가 나타났다. 흥부네 식구들은 몹시 놀랐다기보다 어안이 벙벙했다.

24) 강남 제비 나라 왕이 보내 준 청의동자는 공손히 인사하며 쟁반을 흥부와 그의 안해에게 주고 사라졌다.

25) 착하고 부지런한 흥부와 그의 안해는 쟁반을 받아 들고 새 집 층계를 올라 갔다.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26) 창고에는 옥백미가 산같이 쌓여 있었다.
흥부네 집에서는 밥을 《한 대 여섯 말 할가?》, 《한 대엿 섬 할가?》하며 쌀을 펑펑 퍼내서 평생 소원이던 밥 잔치를 차려 놓고 온 동리 사람들을 청하기로 하였다.

27) 방에 들어 가 농짝문을 여니 새 옷들과 갖가지 비단천들이 그득 차 있었다.
흥부와 그의 안해는 무척 기뻐하였다.

28) 흥부가 갑자기 부자가 되였다는 소문을 들은 놀부는 부리나케 찾아 왔다.
비단옷을 입은 흥부의 안해가 대문을 열고 나서자 놀부는 깜짝 놀라 허리를 굽히고 말았다.

29) 으리으리한 동생네 방안에 들어 앉자 놀부는 흥부네 집 사람들의 인사는 안 받고 긴 대통을 물고 거만을 부리더니 《도적놈들의 새끼들아, 썩 물러 가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며 행패를 부렸다.

30) 그러나 제비 새끼가 물어 온 박씨를 심었더니 부자가 되였다는 흥부의 말을 듣고 제 집으로 돌아 온 놀부는 뱀 대신 제 손으로 제비 다리를 꺾어 버리고 다시 더 부자가 될 것을 자기의 안해와 쑥덕거리였다.

31) 가을 어느 날, 놀부 령감, 할미는 째보와 꼽새둥이를 불러다 놓고 박을 탔다. 미리 돈'궤까지 마련해 놓고 박을 타는 놀부는 그 속에서 금 은 보화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2) 그러나 뜻밖에도 박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금은 보화 대신에 무서운 억쇄가 나타났다. 겁에 질린 놀부 령감, 할미는 손을 들고 말았다.

33) 량반이 마루에 앉아 《노비'돈 일만 량을 내놓아라.》하고 불호령을 내렸다.

깜짝 놀란 놀부는 《웬 만 량씩이나 돈이 있사옵니까?》하며 엎드린 채 애걸 복걸 빌었다.

34) 착한 흥부는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곡간에 쌓였던 쌀을 고루고루 노나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흥부를 일 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35) 돈과 쌀과 천들을 모조리 빼앗긴 놀부의 집은 벼락을 맞아 날아나고 말았다.

욕심 사나운 놀부는 집에서 자기의 안해마저 나가라고 호통을 쳤으나 그들에게는 나갈 집도 없게 되였다.

《맺는말》

36) 마음이 어질고 부지런한 흥부는 자기의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흥부는 안해와 어린이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밭에 나가 일을 하며 살았다. (끝)

분단 총회를 가지기 전에

분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는 분단 총회는 소년단원들을 교양하며 그 때 그 때 분단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토론하고 그를 잘 실천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분단 사업을 해 나가는 데서 분단 총회를 제때에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단 총회가 언제나 훌륭히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의 준비를 빈틈 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단 총회를 가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할가요?

분단 위원회는 먼저 총회에서 무슨 문제를 토론할 것인가를 잘 정하여야 합니다. 분단 총회에서 토론할 수 있고 또 토론하여야 할 문제는 참으로 많습니다.

분단 앞에는 소년단원들이 학습을 잘 하도록 하는 일, 아름다운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훌륭히 키우는 일,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더 재미 있게 하는 일, 소년단 생활을 강화하는 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과업들이 항상 련이어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일들을 다 총회에서 반드시 토론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분단 위원회에서 토론하여 집행할 문제도 있으며 부문 별로 열성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집행하면 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단 위원회들은 그 때 그 때 분단 앞에 나선 과업과 소년단원들의 생활, 요구를 잘 생각해서 꼭 총회에서 의논하여야 할 제목을 골라야 합니다.

다음에는 총회에 내놓을 보고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고의 중심 내용이 똑똑치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인지 잘 밝혀 주지 못 한다면 소년단원들은 총회에서 무슨 문제를 토론하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보고에서는 토론하는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이 잘 되고 있으며 어떤 점이 잘 못 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를 똑똑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면서 잘 하고 있는 반이나 소년단원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는 위원들이 모여 앉아 그 내용을 토론하고 분단 위원장이나 또는 보고를 할 사람이 직접 써야 합니다. (중심 내용만 써 가지고 말로 한다.) 그렇지 않고 남이 써 준 보고를 읽거나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을 제멋 대로 총회에 내 놓으면 안 됩니다.

분단 총회를 가지기 전에 하여야 할 중요한 일은 특히 소년단원들이 모두 주인답게 토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분단 위원회들은 반과 소년단원들에게 이번 총회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 하는데 어떤 내용을 토론하는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동무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놓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분단 위원회들은 총회 내용을 풍부히 하여 주는 기타 여러 가지 준비들도 옳게 하여야 합니다.

가령 례를 든다면 소년단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는 손님들을 모셔 올 데 대한 문제, 총회에서 토의하는 문제를 소년단원들에게 알기 쉽게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람회나 견학 같은 것도 조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진행해야 분단 총회가 성과 있게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벽보 주필이 할 일

단 벽보 주필은 소년단원들로부터 선거 받은 단, 분단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년단원들을 교양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놀고 있는 단 벽보와 분단 벽보들은 모두가 다 벽보 주필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단, 분단 벽보 주필들은 자기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그를 어김 없이 해 내야 합니다.

그러면 단 벽보 주필들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할가요?

단 벽보 주필은 먼저 벽보 편집 위원회를 잘 움직여야 합니다. 매달 벽보 편집 계획을 잘 세워 편집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편집 위원들에게 분공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집 위원들이 분공 받은 과업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자주 알아보고 도와 주며 편집 위원들이 옳게 역할하도록 배워 주는 일을 잘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단 벽보를 내며 기념일 행사나 그밖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특간호》를 내야 합니다.

벽보 주필은 달마다 내는 벽보에 소년단원들의 생활과 요구가 잘 담겨지고 그가 흥미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벽보 주필은 물론 편집 위원들이 항상 소년단원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잘 알며 때로는 벽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여러 가지 모임들도 조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개 분단 또는 반에 통신원들을 두고 그들과의 사업을 잘 하여 언제나 벽보에 소년단원들의 생활이 제때에 옳게 담겨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벽보에 실린 내용을 소년단원들의 실지 생활에 옮기도록 하기 위한 재미 나는 사업들도 자주 조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벽보 주필은 또한 분단 벽보 편집 위원회들이 일을 잘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단 위원회 사업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게 벽보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분단 벽보들도 그에 맞게 내도록 분단 벽보 주필들에게 가르쳐 주며 때때로 분단 벽보를 낸 정형을 총화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간호》를 낼 때에는 그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알려 주며 벽보를 내는 방법, 분단 벽보 주필들이 할 일 같은 것을 배워 주는 사업도 자주 조직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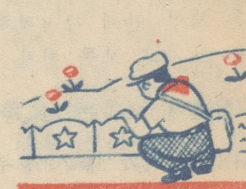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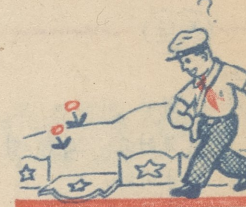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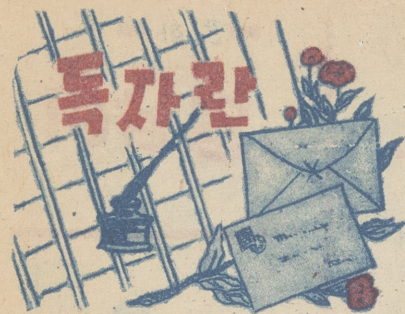
단 벽보 주필은 또한 중요한 시사, 소년단 단체들과 개별적 소년단원들의 모범적인 일들을 제때에 알려 주며 본받게 하기 위한 속보를 자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명절과 기념일, 그 밖에 필요할 때 사진 전람회, 그림 전람회와 같은 사업들도 조직하여야 합니다.

만화

일남이

(동시)

단 추

여기 보천보 박물관
맑은 유리함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단추 하나
사람들의 가슴을 울렁이게 합니다.

해설원 누나의 이야기 들으며
조용히 옷깃 여미면
떠오릅니다.
눈앞에 선히 보입니다.

먼 행군'길에 피곤한 대원들
밤 하늘을 지붕 삼아 잠'자리에 누웠는데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 곁에서
단추 다는 재봉대원 누나의 모습이…

그리고 나는 생각해 봅니다.
지주'집 아이보개로 지내며
변변한 단추 단 옷 한 번 못 입어 본
누나의 피눈물 나는 어린 시절을

또 나는 그려 봅니다.
누나의 보람찬 아동단원 시절
원수님이 보내 주신 새 옷을 받고서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저 단추를 닦는
누나.

아, 전렬장 우의 단추를 바라 보며
나는 교복의 꽃단추를 만져 봅니다.
만져 보며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 행복 위하여
피 흘리며 싸워 이긴 항일 빨찌산 투사
들을.

량강도 혜산시 위연 중학교 김 윤일

(동시)

공훈 광부 아저씨

높고 높은 산들이 이마 맞대인
깊고 깊은 땅 속에서 광석 캐는 아버지
열 여섯 해 긴긴 나날 착암기를 잡고서
쇠'돌,연'돌 많이 캐서 공훈 광부되였
어요.

오늘도 일터에서
돌아 오신 아버지
허허 웃음 지으시며 하시는 말씀
열흘 앞서 어달 계획 넘쳐 했대요.

엄마도 내 동생도 덩달아 좋아
온 집안 식구가 기뻐하는데
라지오는 기쁜 소식 전해 주어요.
우리 광산 축하 방송 울려 나와요.

나도 얼른 자라서 아버지처럼
금 은 보화 캐 내는 착암수 되여
천리마로 달리는 사회주의 조국에
많고 많은 쇠와 연을 보낼테야요.

평남도 성천군 장림 중학교
중등반 1학년 오 영옥

(작문)

최우등을 하자면

나의 책장 안에는 또 하나의 최우등 성적증이 놓여졌어요. 모두 합하면 최우등 성적증이 다섯 개랍니다.

우리 집에 찾아 오시는 마을 어른들과 손님들은 책장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나의 성적증을 보시고 모두 칭찬 하신답니다.

《원길이 머리는 참 좋아…》

나는 머리가 좋은 동무들만이 최우등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언제나 꾸준히 학습하는 동무면 누구나 최우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학습에 취미를 붙이지 못 하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 오면 장난만 했기 때문에 늘 보통 성적이였습니다.

하긴 언제나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붙이기란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루 일과표를 세워 가지고 그 대로 며칠 해 보았는데 좀처럼 되지 않았어요. 동무들과 나가서 장난을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런 때면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서 《배움의 천리'길》과 아동단원들의 학습 경험 등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들뜬 마음을 이겨 나갔지요.

그러면서 나는 공부를 잘 하자면 하루 생활을 규률 있게 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지요.

아침 여섯 시에 잠'자리에서 일어 나면 깨끗한 기분으로 책을 읽지요.

이제는 독서력도 퍽 높아졌답니다. 한 시간에 30~40 폐지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어떤 큰 장편 소설도 손에 쥐면 끝장을 내고야 맙니다.

우리 집은 학교에서 5리'길이나 떨어져 있어요. 아침 학교에 갈 때면 자그마한 수첩에 수학 공식, 로어 단어 등을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외운답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 오면 아버지,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드리고 나서 밤 10 시까지 공부합니다. 공부하다가 지루하면 뜰에 나가 노래도 부르고 동요, 동시도 외운답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에는 하루 생활에서 있은 중요한 일들을 일기장에 어김 없이 써 놓군 합니다.

꾸준히 공부하면 최우등을 못 할 동무들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어요.

난 최우등을 했다고 자만하지 않아요.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더 잘 하여 전국 모범 소년단 열성자 대회 결의 실천에서 모범 소년 단원이 되겠어요.

황북도 곡산군 사현 중학교 신 원길

황룡사의 소나무

—신라의 유명한 화가 솔 거에 대한 이야기—

박 수 미

멀고 먼 옛날 아직 우리 나라가 고구려, 신라, 백제로 나뉘여 있을 때 일입니다. 오랜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린 많은 화가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시기 신라에 유명한 솔 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여 났기지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가 어떤 집에서 태여 났는지 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무척 좋아 하였으나 그림 그릴 종이와 채색도 없었고 또 깊고 깊은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배워 줄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가서는 작대기로도 그림을 그리고 혹은 칡뿌리를 캐여 바위에다가도 그림을 그려 보군 하였습니다.

벌에 밭갈이를 나가서도 쉴 참이면 막대기로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리군 하였습니다.

꾸준한 그의 노력은 열매를 맺게 되였습니다. 마침내 신라에서는 솔 거 만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없게 되였습니다.

신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경주 황룡사라는 절간의 벽화를 맡아 그리게 되였습니다.

큰 벽에다 아주 오래 묵은 소나무를 그리였습니다.

구불 구불 줄기가 뻗어 올라 간 것과 날카로운 솔'잎들이 아주 신통하게도 산 소나무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신통하였던지 그 앞을 날아 나가던 새들이 벽에 그린 소나무를 산 소나무로 알고 푸드덕 푸드덕 날아 들다가는 그만 벽에 부딪쳐 땅에 툭툭 떨어지군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벽에 그린 소나무의 색이 점점 낡아 흐려지고 소나무의 잎들이 지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절간의 한 중이 다시 색칠을 하였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새들이 한 마리도 날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비추어 보아서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뛰여난 화가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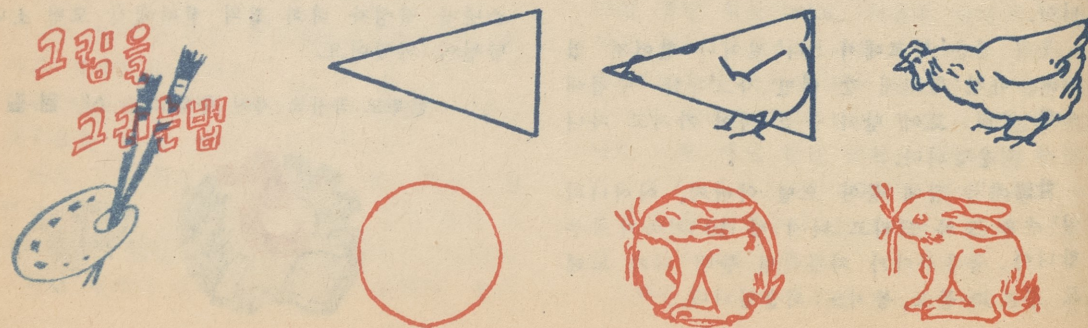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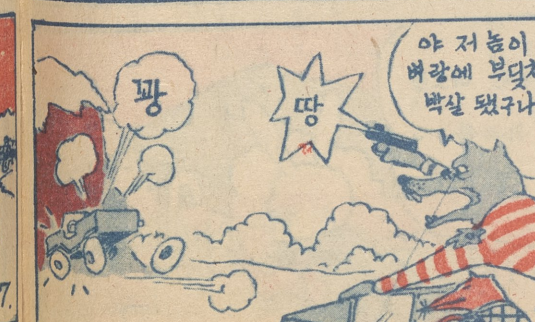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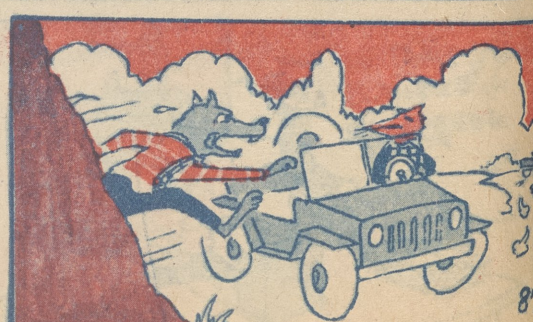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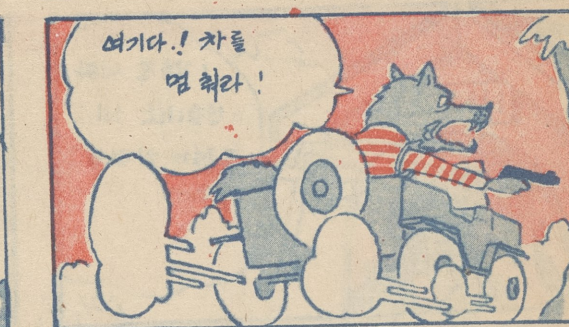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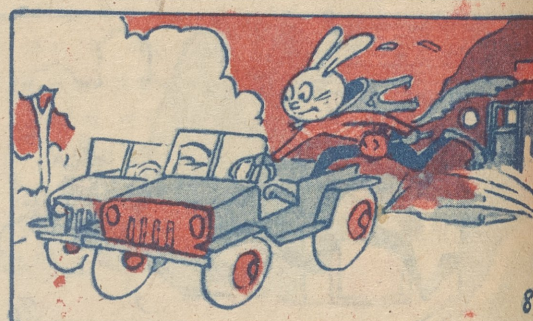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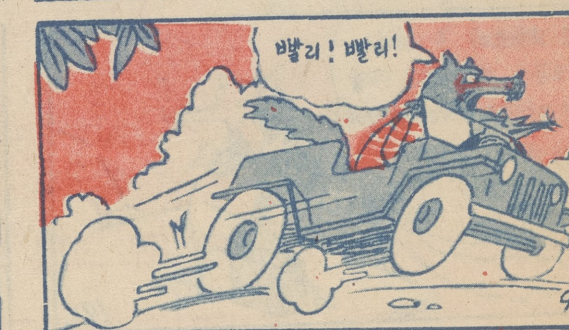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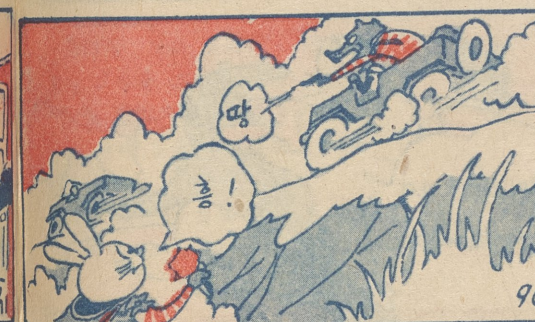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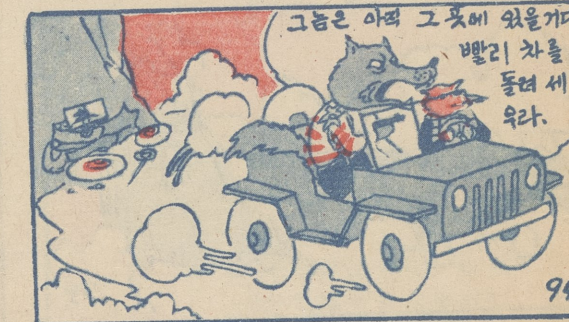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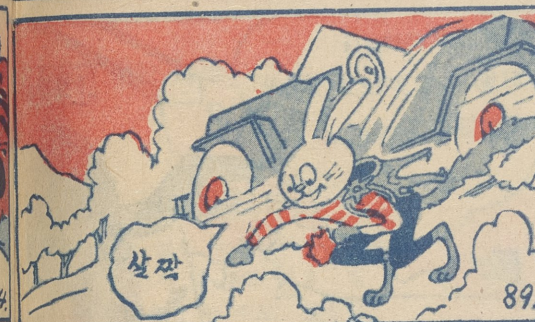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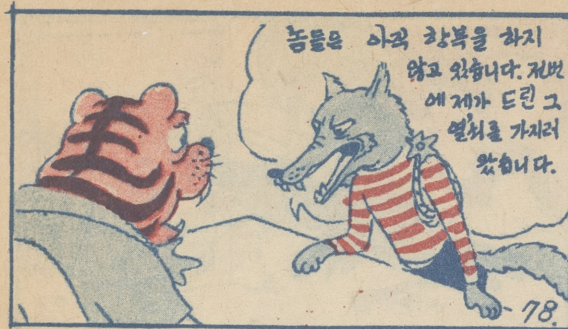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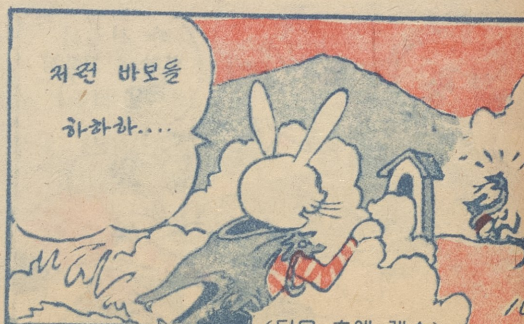
그는 자연 뿐만 아니라 인물화도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가 그처럼 훌륭한 화가로 될 수 있은 것은 오직 그의 꾸준한 노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그림 공부를 하면서도 한 번 마음 먹은 일은 끝까지 해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건 세밀하게 관찰하며 남이 찾아 내지 못 하는 자연의 특징들을 잘 끄집어 내서 자기 그림에 표현하군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뛰여난 재능은 온 세상에 알려졌고 1천 삼 백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비록 그림은 볼 수 없으나 그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놈들은 아직 항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드린 그 열쇠를 가지러 왔습니다.
창고문을 열고 그 무기를 모조리 실어 와야 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자 받아라.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참모장이 둘이 나타났으니.
제가 참모장입니다. 사슴에게 항복 받으러 갔다가 대장님과 의논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아니요 저놈이 가짜 참모장이 틀림 없습니다.
네 놈은 가장한 정탐'군이다.
아니다. 네놈이 진짜 정탐'군이다.
두 놈 다 묶어라!
저 뛰는 놈이 가짜였구나. 저놈을 붙들라!
땅
땅
살짝
땅
흥!
열쇠를 감추어야지 인제는 어떻게 행동 해야 할가?
꽝
땅
야 저 놈이 벼랑에 부딪쳐 박살 됐구나.
아니 그놈이 어떻게 됐을가? 아, 속았구나. 그놈은 굽인돌이에서 내려 뛰였구나.
그놈은 아직 그곳에 있을거다 빨리 차를 돌려 세우라.
빨리! 빨리!
여기다.! 차를 멈춰라!
난 여기서 그 놈을 찾아 볼테니 넌 빨리 가서 각 보초소 마다 전화를 걸라.

(다음 호에 계속)

(속담)

△굴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공 든 탑이 무너지랴?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가 없다.
△찧는 방아도 손이 나들어야 한다.

이 속담들은 무슨 일에서나 꾸준히 노력할 때만이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빨리 셀가요?

인민반, 중등반 소년단원은 누ㅏ 할 수 있는 놀음입니다.

놀음은 둘이 할 수도 있고 편 짜서 여럿이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종이에 다음과 은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노는 방법은 한 사람씩 그림 앞에 서서 웃줄 왼편부터 세여 나갑니다.

세는 방법은 첫째 토끼, 첫째 오리, 둘째 토끼, 첫째 닭, 세째 토끼, 둘째 오리, 둘째 닭…

이렇게 차례를 따라 세여 나갑니다.

셀 때에는 차례를 잘 외워 두었다가 빨리 세야 합니다.

만일 네째 줄의 첫째 닭은 《다섯째 닭》인데 《네째 닭》이라고 세였을 때는 틀린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동무는 다시 세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기를 거듭하여 제일 빨리, 제일 많이 세는 편이 이깁니다.

암산을 빨리 하는 법

수'자를 보면서 암산을 빨리 하는 방법은 가하여 10 또는 20으로 되는 수'자들의 짝을 무어 암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합하면 10 또는 20이 되는 수들의 짝을 미리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즉 1, 9. 2, 8
3, 7. 4, 6
5, 5. 1, 1, 8
1, 2, 7. 1, 3, 6
1, 4, 5, 2, 2, 6
2, 3, 5. 3, 3, 4
3, 8, 9. 4, 4, 2
4, 7. 9. 5, 6, 9
5, 7, 8. 6, 6, 8
7, 7, 6. 8, 8, 4
9, 9, 2, 등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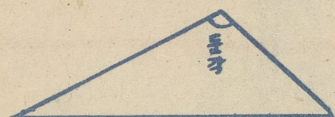
(례)

8, 7, 5 (10개 짜리 2개)
6, 5, 9 (10개 짜리 2개)
6, 4 (10개 짜리 1개)
2, 9, 9 (10개 짜리 2개)
8, 8, 4 (10개 짜리 2개)
6, + 2 (8)

98 (10개 짜리 9개와 8 즉 98 입니다)

현상? 문제

(인 민 반)

그림과 같이 세모 난 종이를 두 번 가위질 하여 베여 낸 것을 직사각형이 되도록 맞추려면 어떻게 오리여 어떻게 맞추면 될가요?

(중 등 반)

영철이네 분단 동무들은 여름 방학 동안에 남천강으로 수영 경기를 하러 갔습니다.

분단 위원장 영철이는 분단 동무들에게 강의 깊이와 그 흐름의 속도를 알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단 동무들은 모두 척척 알아 냈습니다. 어떻게 알아 냈을가요?

웃음 주머니

드러난 배'속

《옳지 됐네, 됐어, 됐단 말이야, 히, 히 히히… 우리 마누라 계교두 이만 저만이 아니거든 히히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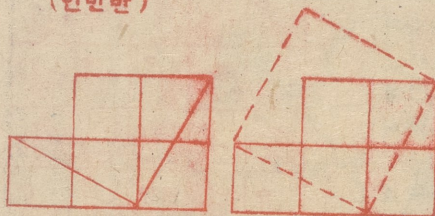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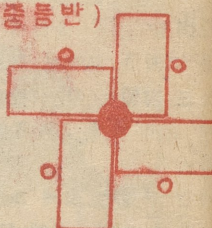
너편네하고 쑥덕 공론을 하던 황지주놈은 두꺼비 걸음으로 머슴'군들이 일하는 밭으로 나갔지요.

《여보게들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한 집안 식구가 되세 응, 별다르게 생각할 건 없네 히, 히, 히… 》

가을이 되였지요. 머슴'군들은 일 년 일한 품값을 내라고 하였어요, 그랬더니 지주놈은 《아니, 정신이 있나 원, 한 집안끼리 품값은 무슨 품값…》

《주인님 품값을 물지 않겠으면 이제부터 한 집안 식구인데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똑같이 해야겠수다…》

《어! 어! 그럴수야 없잖나?…》

6 호 현상 문제 해답

6 호 현상 문제 당선자

(인민반)				(중등반)			
개성지구	판문군	대룡 중학교	서 히욱	함남도	신창군	거산 중학교	리 명동
평남도	룡강군	룡강 중학교	김 자욱	평북도	동창군	대동 중학교	김 은숙
함남도	북청군	청흥 중학교	강 병환	강원도	원산시	갈마 중학교	송 찬석
평북도	동창군	대동 중학교	김 명희	함흥시	반룡	중학교	김 오입
평남도	강서군	송호 중학교	한 금하	함북도	김책시	청학 중학교	김 춘자

잡지명 소년단 제 8 호 (루계 178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7월 21일 발 행 1964년 8월 1일

ㄱ—430397 값 35 전

공작실

모형 욧트 만드는 방법

재료—욧트를 만들 나무로서는 홍송, 삼송, 버드나무, 백양나무 등이 좋다. 기타 약간의 철판, 연, 엷은 천, 그물실, 가풀, 도료, 와니스.

도구—대패, 끌, 공작 칼, 가위, 뻰치, 마치, 타래송곳.

배몸뚱이 만들기.

ㄱ) 나무를 길이 450㎜, 폭 70㎜, 높이 38㎜ 되게 짜른 후 대패로 잘 민다.

ㄴ) 나무에 배몸뚱이 모양을 그린 후 실톱으로 그림 1과 같이 따낸다.

ㄷ) 다음에는 현도자를 사용하면서 그림 2와 같이 배몸뚱이 밑을 칼로 따낸다.

ㄹ) 배몸뚱이 만드는 작업이 끝나면 그림 3과 같이 배몸뚱이 속을 파낸다.

다음에 갑판을 만들어 그림과 같이 붙인다. (그림 3)

ㅁ) 속을 파 내는 작업이 끝나면 그림 4와 같은 바라스트룡골을 만든다.

그리고 배 몸뚱이 밑 부문에 홈을 파고 바라스트룡골을 꼽는다. (그림 3)

ㅂ) 바라스트룡골 밑 부분에 연으로 된 추를 단다.

4. 돛대(마스트) 만드는 방법.

ㄱ) 가로, 세로 10㎜, 길이 560㎜의 나무로 그림 5과 같이 만든다.

ㄴ) 돛대의 우'부문에 그림 6과 같은 고리를 만들어 끼우고 고정못을 박는다.

ㄷ) 갑판에 구멍을 뚫고 돛대를 꽂은 다음 키를 만들어 단다.

5. 돛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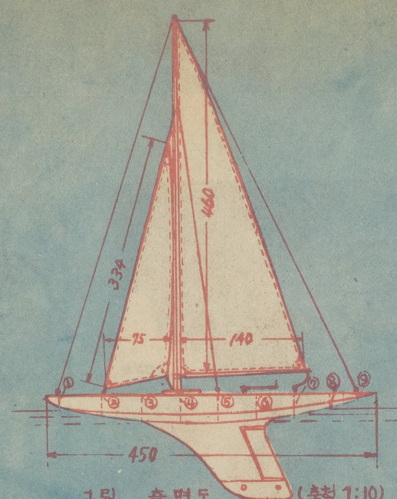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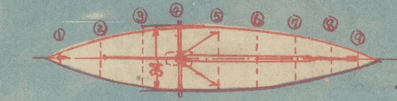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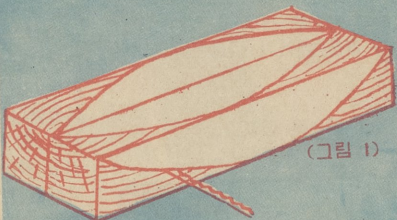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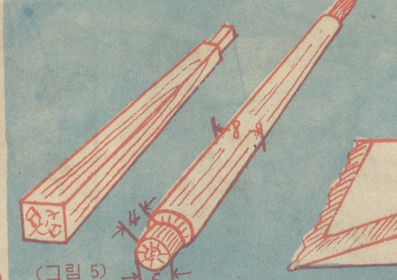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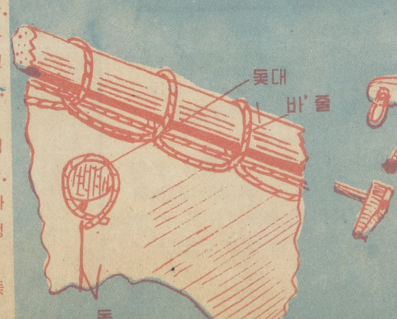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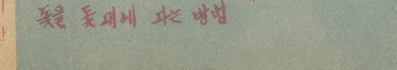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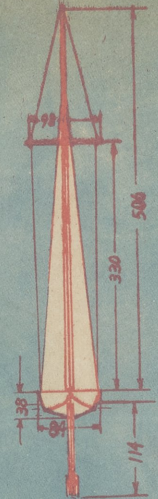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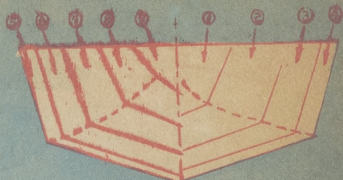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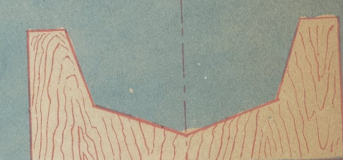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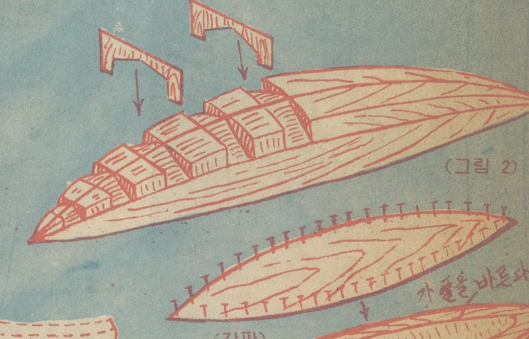
돛을 만들기 위해서는 500㎜×150㎜의 천을 준비한다. 돛 모양을 종이에 그린 다음 그것을 천 우에 놓고 그림 7과 같이 가위로 벤다.

6. 돛 다는 방법.

ㄱ) 배에 돛을 세운 다음 그림 8과 같이 줄로 고정시킨다.

ㄴ) 돛대에 그림 9과 같이 가름대를 댄 다음 줄로 고정한다.

ㄷ) 큰 돛은 뒤에 달고 작은 돛은 앞에 단다.

배가 다 되면 도료를 와니스에 섞어 2~3 번 칠한 후 연마지로서 닦는다.

정기 간행물
번호 제 13454 호

과학 환상 만화

땅속의 보물을 찾아서

(제 10 회)

글 안 형룡 그림 안 창수

㊷그들이 땅 표면으로부터 약 4000 m의 깊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앗! 저것 봐》 무지개 빛같은 물을 가리키며 명숙이가 말하였다. 어느 새 차를 멈춘 창남이는 그 이상한 빛을 내는 물을 한 통 길어 올렸다.

《원유는 아닐가?》

그들은 서로 냄새를 맡아 보았다.

《뜨락또르에 쓰는 기름(중유) 냄새와 같구나.》 명숙이가 말했다.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은 모두 낯을 찡그렸다.

㊸《어떤 원유는 향기도 난다는데…》

관식이는 언젠가 선생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며 주머니에서 석냥을 꺼냈다. 관식이가 석냥을 그어 대자 검은 연기가 그을음을 내며 활활 타 올랐다.

《원유 발견!!》

그들은 너무 기뻐 환성을 올렸다.

㊹명숙이는 곧 무전으로 지상에 련[…]
다.

창남이는 관식이가 원유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하여 알려 달라고 하[…] 선 지도를 그려가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수 백만년 전에 […]라는 바다였다는 것 그때 바다에는 […]생물들인 부유 생물들과 박테리아들[이 살]았는 데 죽으면서 바다 밑에 갈아[앉] 이고 싸여서 산소 없는 곳에서 여[러] 작용을 받아 원유가 되였다는 것을 […]했다.

㊺창남이 이야기에 정신이 팔렸던 관식이는 깜짝 놀랐다. 차가 땅 속에서 나와 바다 속에 들어 갔기 때문이였다. 창문으로는 바다 속 자연이 아름답게 보였다. 이름 모를 여러 가지 고기들이 그들을 축하 하듯 꼬리 치며 헤여 다녔다.

㊻차는 이어 물 우에 떴다. 머리 우에는 꼬마 탐사대를 실으러 온 비행기가 줄사다리를 내려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도 기뻐 손을 막 흔들었다.

㊼많은 땅 속 보물을 알아 낸 그들의 마음은 높이 뛰였다. 비행기는 어느덧 민주 수도—평양의 하늘에 나타났다. 저 멀리 꼬마 탐사대를 환영 나 온 수 많은 군중들이 보인다. 그들은 절로 노래가 나왔다.

아—
우리는 꼬마 지질 탐사대.
래일의 조국은 우리들이 건설한다네
속엔 보물이 많다네
우리는 땅 속의 보물 캐는 용사로
배우며 자란다네.

—끝—